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1 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4-955 1982년 10월 15일(금) 16(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15 & 1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폴랜드데모 지방으로 확산

경찰, 진압에 장갑차·최루탄 동원
정부·국민 노조복권놓고 대결

(그라코우, 폴랜드)폴랜드 정부가 지난 8일 노조를 법으로 금지시킨데 항의하는 데모가 폴랜드 전국자유노조(솔리대리티) 본산지인 그댄스크에서 3일간 계속된지 일단 진압된듯했으나, 이 데모는 14일 마침내 타지방으로 번져나갔다.

이날 제철공업도시인 노와·후타에서는 수천명 노동자들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무장한 진압경찰에 평화적 시위로 맞섰다.

데모는 정부가 일부 억류인사들의 석방및 계엄해제를 미끼로 솔리대리티등 일체의 노조를 불법화시킨데 대한 항의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담한 정부 대 국민의 정면대결로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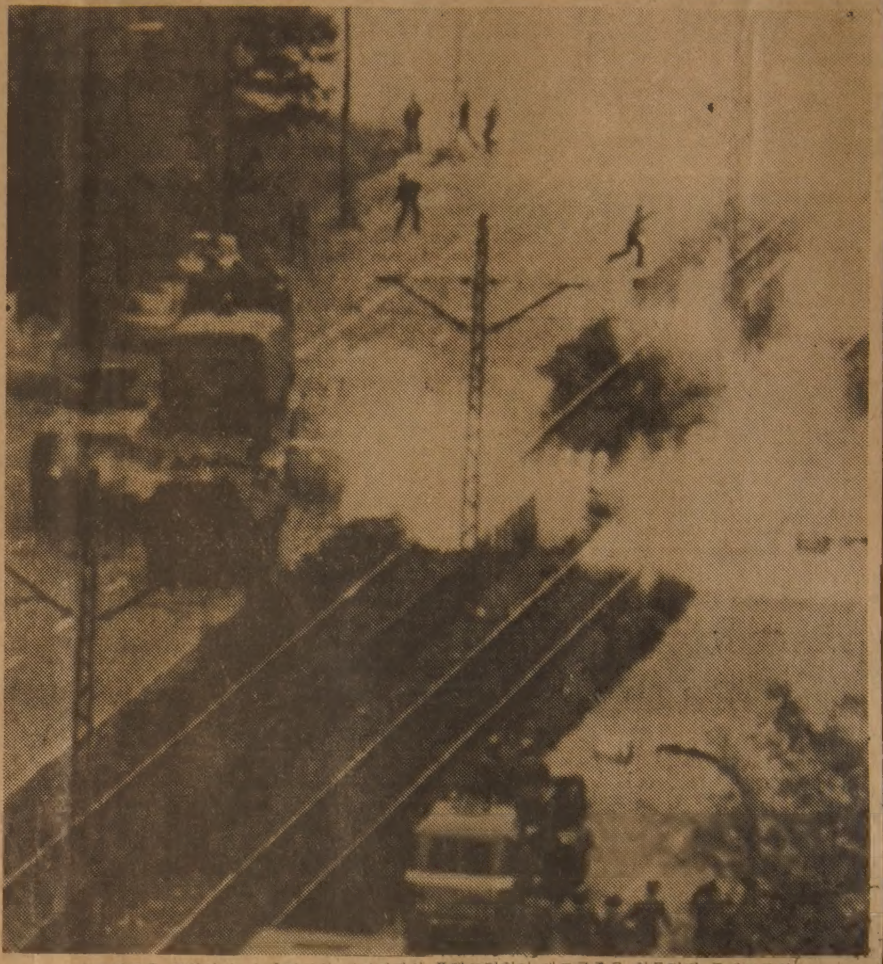
남서부 공업도시인 로클로브에서도 14일 장갑차등 20대의 경찰차량이 수백명의 데모대원들을 분산시켰다.

목격자들은 30여명의 청년들이 솔리대리티지부 탄생기념지에서 헌화하던 중 경찰에 체포돼 갔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남서부 도시인 포쯔난과 그댄스크 남쪽 그다니아에서도 지난 3일간 데모가 있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편 그댄스크 지역의 데모는 계엄당국이 레닌조선소를 군통제하에 두고 근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복종않을 경우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엄령을 내린 뒤 진압됐다.

한 조선소 직원은 "총구를 들이대는 바람에 별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크라코우 교외인 노바·후타시의 시가지에서 폴랜드경찰이 데모군중을 최루탄과 물대포로서 진압하고 있다.

광주사태 복역 제적학생
옥중 단식투쟁끝에 사망

정부대변인은 "심장마비다"밝혀

(서울=외신)지난 80년의 광주사태에 관련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제적당한 한명의 전남대학생이 40일간의 단식투쟁끝에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대변인은 박광현씨(30)가 11일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나 사망원인은 단식이 아닌 심장마비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박씨가 몇차례 3~4일씩 단식투쟁을 했으나 사망직전에는 단식투쟁중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박씨는 수감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했었다』고 밝혔다.

전남대생이었던 박씨는 광주사건으로 체포돼 유죄선고가 내린 2백명중의 한 사람이었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총장·교수 8명사임

경희대 수원이전 항의데모

(서울=외신)경희대의 일부 학과를 서울지역밖으로 옮기려는데 반대하며 경희대생들이 지난 1주간 시위를 벌인데, 책임을지고 12일 안치열총장등 8명의 교수진이 사임했다.

안총장과 이원섭부총장등 8명은 재단이사들이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연좌데모및 교내시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데 불만을 표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타스통신 대표 방한

서울 언론관계 국제회의에

(서울=외신)한국과 정식국교가 수립되지 못한 소련이 처음으로 언론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해 한국에 대한 소련당국의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번 타스통신사의 대표단 3명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언론관계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있다.

한국관리들은 타스통신사 3명대표단은 하이야트리젠시호텔에서 2일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의 제3그룹 기술위원회에 참석하고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관리들은 비정부관계회의로 소련을 많이 방문했으나 소련관리들은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서울회의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뉴스네트워크의 기술적측면연구와 회원통신사에 대한 뉴스공급문제등이다.

민간 자본 희망

한일 유착에 대응

(도꾜)지난7일 국제금융소식통은 40억달러를 에워싼 한일경제협력문제의 대상 프로젝트의 하나인 부산지하철 건설사업으로 한국이 50억원(일화)의 일본 민간자금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과서 왜곡문제등으로 중단되고 있는 일화차관이나 일본수출입은행의 융자등 공적자금 협력의 교섭과는 별도로 한국측이 경제협력의 대상사업에 일본의 민간자본을 도입코자 채권발행을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치문제와도 관련되므로 일본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일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경제협력문제는 일본이 약 40억(원차관 $15억, 수출은행융자 $25억)의 공적인 융자협력으로 마무리져 가다가, 교과서사건으로 교섭이 중단돼, 지난 6일에는 김상협 한국총리가 국회에서 "교과서 왜곡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경제협력문제는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조기타결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있다.

"아무 원한도 없다"

교민칼부림

병상의 남씨 우발사고 주장

블루어에서 발생한 한국인 간의 칼부림사건의 원인은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사고라고 피해자는 말하고 있으나 아직 분명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1시55분 블로아의 한인상가 중심가의 몬트리얼은행 뒤쪽에서 교민 김철수씨(41)는 과음으로 인한 정신혼란중 동료 남상열씨를 길이11인치 폭 3.5인치짜리 칼로 찔러 가슴 두군데에 10cm와 5cm 길이의 상처를 입혔다.

남씨는 사고직후 토론토·웨스턴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안정세에 있다. 13일 남씨는 병상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와 아무 원한도 없다. 단순히 우발적 사고였다. 김씨는 평소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 가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요즈음 지렁이사업도 시원치 않아 많은 고민이 있은것으로 안다. 김씨가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름에는 지렁이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택시운전을 하는 김씨는 13년전 캐나다에 이민, 시민권자가 됐으며 현재는 자비스의 한 모텔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생활해왔다.

13일 온타리오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5천달러 보석금으로 보석이 허락됐으나 14일 현재 보석금을 물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14디비존의 돈포드형사는 13일 "이 사건은 두사람 사이에 일어난 단순사고이기는 하다. 우발적사고로만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살인기도와 위험무기소지및 상해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남씨는 지난 73년 캐나다에 이민, 그동안 위니펙에서 살아왔으며 부인과 자녀2명이 있다. 남씨의 가족은 캐나다생활에서 정착을 못해 2년전 한국으로 돌아 갔으나 사업이 여의치 못해 남씨 혼자 금년초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율 계속 하락추세

1년만기 14.5% 5년만기16.5%

모기지 이자율이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속에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몬트리얼은행은 14일 1년만기 모기지율을 15.25%에서 14.5%로, 5년만기를 16.5%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기타 은행들도 모기지율을 인하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몬트리얼은행의 모기지율 인하조치는 불과 1주일내에 2차례나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7일에도 여타 은행들과 함께 모기지율을 1.5퍼센티지·포인트씩 내린바있다.

최근 캐나다 각 은행들의 계속적인 모기지율 하향조정움직임은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과 캐나다시중은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뱅크·오브·캐나다(캐나다중앙은행) 금리의 추세에 기인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현재 토론토 외환은행은 우대금리는 14.5%였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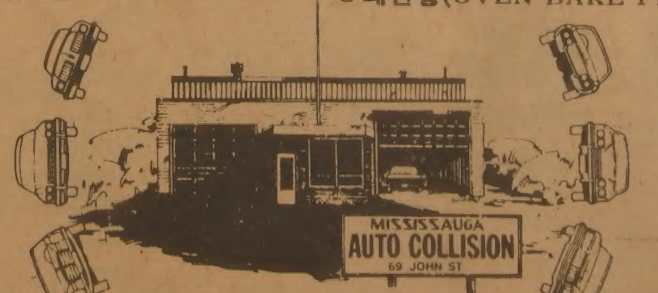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은하 보석
란 대
콤 리
화 점
장
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O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O수리중 차대여
O완전한 차체수리
O사고차량 TOWING SERVICE
O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보광한약방
확장이전 개업안내
•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봉사
• 사암오행 침구 전공
•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주소 : 627 Bloor st. W. #2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 (B)588-1984 (R)439-6717 송계 김남진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정명훈 토론토심포니 지휘
20,21일 8시 로이·톰슨·홀서

세계적인 대지휘자가 되기를 꿈꾸는 한국인 지휘자 정명훈(29)씨가 오는 20일과 21일(수·목) 밤8시 로이·톰슨 홀에서 토론토 심포니를 지휘한다.

지난 9월29,30일 토론토를 다녀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의 동생인 정씨는 이번 연주에서 하프연주자 주디·로만(Judy Loman)과 함께 하이든의 하프협주곡 D장조를 연주한다.

L.A.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있었던 정씨는 연주경력을 넓히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세계를 순회하며 객원지휘해 왔다.

금년시즌에만도 베를린 심포니, 스위스·로망드, 스톡홀름·필하모닉, 헬싱키·필하모닉등과 협연한 정씨는 원래 피아니스트로 활약, 모스코바경연대회등에서 입상하기도 했었다.

오타와의 내셔널·아츠·센터·오케스트라와 한국의 KBS심포니등으로부터 상임지휘자가 되어달라는 교섭을 받았던 정씨는 아직은 "특정오케스트라에 매이고 싶지않아" 모든 오퍼를 거절했다고 말한바있다.

그는 L.A.에 부인과 2남매를 두고 있다.

정씨는하이든 협주곡외에 코달리의 갤란타 무곡(Kodaly's Galanta Dances)과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6번, 작품 111을 지휘한다.

주디·로만은 캐나다출생의 미국인으로 40대의 여성 하프연주가이다.

이미 예매가 시작된 연주회 티켓은 $25, $22, $18.50, $11.00이고 각 Ticketron이나 Ticket Centre(146 Front St. W. #460) 혹은 전화 598-3375로 Visa, Eaton's, Master Card로 예매 가능하며, 매진되지 않을 경우 연주회 당일 5시이후 로이·톰슨·홀 매표소에서도 살 수 있다.

◆지휘자 정명훈(29). 그는 20일, 21일(수·목) 이틀간 로이·톰슨 홀에서 토론토 심포니를 지휘한다.

가정붕괴로 세계는 고민
UN, 핵가족화·이혼격증 지적

(뉴욕)핵가족화나 이혼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현상은 선진국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번져, 가정에 대한 의식도 세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지난 7일 UN정기총회에 내놓은 「세계사회정세보고」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는 3년에 한번씩 UN본부 사무국이 집계·발표하는 「세계시민의 백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의 평균 구성원수는 80년 현재 선진국이 3.1명(65년에는 3.5명), 개발도상국(중진국)은 5명(65년 5.2명)으로 세계 전체로 보면 4.3명(65년 5명)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세기말에는 이같은 핵가족화가 더욱 늘어 선진국 2.6명, 개발도상국 4.1명, 세계 전체로는 3.7명의 평균가족수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세대(가구)수는 현재 추정되는 10억3천만 세대에서 금세기말에는 16억8천만세대로 추정, 60%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가족이 느는 이유로서 동보고는 1)생활조건의 향상, 2)출산율의 저하, 3)이혼자및 미혼모의 산아에 따른 편모(나 편부)의 증가를 들고, 3)은 가정파괴가 빚은 현상으로, 그 대표적 보기로 미국에서는 17세이하 자녀의 23%가 외짝부모, 혼자 사는 1인세대가 22%가 되고있다(80년).

혼외출생은 선진국에서는 전체출생의 10~17%를 차지하고 있다.

초혼후 이혼자도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증, 중남미에서는 어떤 나라는 20~80%나 되고, 아프리카의 도시에서는 여성의 25%,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36%, 뱅그라데시 21%, 태국 18%등을 차지한다.

또한 혼인전 동거가 느는 경향이 지난 20년간에 선진여러나라와 중진국 도시지역에서 눈에 띄게 많아졌고, 피임법의 발달, 생활향상이 이같은 현상을 촉진했다고 UN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 동보고는 세계 전체의 평균나이는 현재 58세(선진국 72세, 중진국 55세)로 이 30년간 10세나 장수하게 됐고, 이동안 특히 중진국의 수명연장이 13세로 선진국 7세를 능가하고, 인구의 노령화(수명연장)가 세계적 경향임을전했다.

UN 「세계사회정세보고」의 가정항목 이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세계 전체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1981년, 지난 4반세기중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2)세계 전체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4억3천만명에 달했다.

3)중산국의 유아(젖먹이및 유년) 사망율은 선진국(1천명당 13명)의 5~6배로 여전히 높다.

4)문맹자 수는 세계 전체에 약 8억명이나 되며, 문맹률은 29%에 달한다. 그중에서 중진국이 41%(선진국 2%)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토론토의 카페브·에스틴 리듬체조단 소속의 3명의 미녀들이 최근 호주의 브리스베인에서 열린 영연방 게임의 페스티발에서 보여준 체조의 일부분을 재연하고 있다.

이번 영연방 게임에서 크게 힛트한 이 체조단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앞에서도 시범을 보였었다.

카디널즈 1승1패
2차전서 밀워키에 설욕

(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가 13일 벌어진 밀워키·브루어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8회말 밀어내기로 1점을 간신히 얻어 시리즈를 1승1패 동률로 이끌었다.

8회말 스코아 4:4에서 주자를 휘스트, 세켄드에 두고 구원등판한 밀워키의 피처 피터·래드는 세인트·루이스 강타자 로니·스미스와 대결, 쓰리볼·투스트라익 풀카운트까지 끌고갔다. 이어 다음볼로 휘볼을 허용한뒤 다음타자 스티브·브런도 걸려 밀어내기를 허용했다.

밀워키 피처 래드의 불평은 브런의 휘볼이 아니라 스미스에게 적용된 4번째 볼이었다. 래드는 게임후 "야구장에서 그볼이 스트라익존을 지나는 것을 못본사람은 주심뿐이었다. 타자 스미스조차 스트라익 아웃된줄 알고 덕·아웃으로 걸어 나가려 했다"고 말했다.

월드시리즈는 이제 중반전으로 돌입, 15일부터 밀워키에서 3연전을 가진후 필요하면 6·7차전을 세인트·루이스에서 다시 가진다.

"음주운행 뿌리뽑자"
「온」주 특별기동대 창설

온타리오정부는 캐나다 젊은이들의 주된 살인범인 음주운행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기동타격대를 조직한다.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주 검찰총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개 부처가 개입될 이 기동타격대는 알콜과 관계된 하이웨이상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타격대의 신설은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이 프라이드(PRIDE)(음주운행법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만난후 맥머트리검찰총장에게 지시한뒤 박차를 가했다.

PRIDE회원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알콜과 관계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은 500여명이다.

PRIDE부회장인 토론토의 존·베이트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행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살인자"로 6년간 음주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세계제2차대전중 전사한 캐나디안보다 더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에서는 1,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중 60%가 음주운행을 했거나 음주운행자에 의해 치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몬드가격차이 심해
감정사에따라 4배 차이도

온타리오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감정가에 따라 무려 4배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소비자·상관계부가 소비자들의 고발을 토대로 메트로에 있는 6명의 보석감정가에게 4개의 다이아몬드보석을 감정하게 한 결과, 한가지 예로 0.7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반지는 최하 3,000달러에서 최고 12,000달러까지 감정가에 따라 무려 4배의 가격차가 났다.

로버트·엘지 소비성장관은 최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업계는 감정가들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세워줄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감정가는 보험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약간 높일 수도 있어 다이아몬드의 실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성의 메이비드·미첼 조사·집행국장은 이같은 자체조사는 어느 소비자가 같은 다이아몬드반지를 두번 감정해 본 결과 가격차가 무려 1,115달러나 있어 소비성에 고발, 조사했다고 말했다.

1979년 2월 토론토선지가 실시한 다이아몬드 감정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동일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가지고 10번의 감정을 한 결과, 같은 가격이 하나도 없었으며, 최하 800달러에서 최고 1,450달러까지 다양했다.

소비·상관계부의 조사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소지자들이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한 제시된 감정가격을 받아 주고있다.

무해식품 25종 생산
온타리안발효공업회사

한인 식품공장이 또하나 생겼다. 온타리안발효공업회사를 차린 최재경씨는 식품전문가들을 채용, 두부·콩나물·휜떡등 21종목을 생산, 한인식품점들에 공급한다.

대표 최씨는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제품생산에 특수성을 두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도 화학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 자연성장에 의해 만들어진다. 두부도 간수가 없는 두부및 간수를 섞은 두부의 두가지를 만들며, 새로 각종 독특한 맛을 내는 국(Soup)도 개발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기 제품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랑거리로 각종 수프(국가루)를 든다. 우동수프도 가마보코, 유부로 된 것과 거기에 멸치가루도 섞은 것 두가지가 있으며, 떡국육수가루, 짜장수프, 냉면육수수프등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한편 조미료 "핵산"(소다RNA)도 그의 특산품으로 미원, 미풍이나 일제 아지노모도를 능가하는 우수산품으로 장차 특허를 내어 대량생산 계획이라고.

최씨는 한국시절 공업연구소에서 유기화학 합성연구원으로 3년간 근무, 경험을 쌓았으며, 토론토대학에서도 8년간 생화학 합성연구원으로 근무했었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관람소감〉
국립무용단 공연을 보고서…
무용가 김미영

◆무용가 김미영씨가 지난 6일과 7일 토론토 라이어슨극장에서 있은 한국국립무용단의 공연을 본 감상을 본지에 기고해왔다.

남미로부터 시작하여 2개월반만에 토론토에서 공연을 갖게된 한국국립무용단의 공연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어 우리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보통 무용공연을 찾는 사람들은 그저 무용을 관람하는 경우가 허다하나 진정한 의미의 무용공연은 차원높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동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 관중을 즐겁게 해 주어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라이어슨극장에서 있었던 이번 공연은 선전미비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지만 무용예술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즐거움을 만끽 시켜준 무용공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공연내용을 살피면 제1부는 장고춤, 바라춤외에 8작품과 제2부 고풀이, 살풀이 외에 5작품등 한국무용의 의식, 전통, 민속, 창작무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수 있었다.

김백봉씨 안무의 장고춤은 장단의 변화가 너무 심해 복잡한 느낌을 주는듯 하였으나 설장고와는 달리 춤을 중심으로한 멋과 가락, 그리고 치마폭을 여미고 추었던 식에서 통치마를 입고 장고를 메고 추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이번 공연의 무대를 활기있게 이끌어준 장본인인 국수호씨 안무의 종교적인 고양, 농악등은 한국무용의 특징인 흥과 신명을 잘 살려 현대감각에 알맞게 안무되어졌고, 여성단위의 조용한 무대에서 과감히 많은 남성무용수들의 기용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무대의 균형을 활기있고 안정되게 이끌어갔다. 국씨는 한국무용계의 거목으로서 장차 계속 우람하게 자라나갈, 그리고 무용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는 것을 필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바이다.

◆무용가 김미영씨

스케이트 트레이드·인 브랜드 스포츠사서

브랜든 스포츠사(대표 이전영)는 스케이트및 스키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 스케이트와 스키 붓츠를 트레이드·인한다.

날로성장하는 어린이들에 해마다 스케이트와 붓츠를 새로 사주는 경제적 부담대신 헌 상품도 교환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브랜든·스포츠사의 주소는 337 Bloor St. W. 연합교회 건너편이다.

개점시간은 월~토 아침 9시30분부터 밤 7시30분, 전화 598-3732이다.

주간女性

제5계절

알프스산이야기
조정대 (문협회장)

○조정대씨

참 오랫만의 여행이었다. 이민 와 처음 맛보는 여행다운 여행이라고 해도 좋겠다.

칠년이 넘도록 미련하게 한 가게를 지키다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피로와 권태와 용맹없는 불만 뿐이었는데, 다행히 바보의 용단 있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또 털어버리고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도 가벼웠다.

여행이란 떠나는 일이고, 또 지치고 맥풀린 심신에 새옷을 갈아 입히듯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라 믿는다.

날마다 새로운 경탄으로 다가서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엄청난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에서 비롯되는 빛나는 문화의 유산들. 그중에서도 서양문화의... 기반이었고, 그 구심점이었던 찬란한 그리스도교문화를 접하면서 조금은 더 내가 살고 있는 북미대륙의 흐름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짜증나는 마음, 화난 얼굴일랑 다 벗어던지고, 잃어버린 본래의 자기를 찾아떠나는 순수한 행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고독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비극의 원천이 어디메인가를 짐작하게 된다.

그래서 여행은 역시 즐겁고 진요한 것이라 느껴진다.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밝은 내일을 위해서도 말이다. 그것이 설마 물질적인 부와 직관되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민생활로 비롯하여 굳어진 메마른 정서를 보다 풍요하게 해주고,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늘 아래 우리 모두 형제라는 밝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좋겠다.

영국을 기점으로 하여 9개국을 도는 유럽여행과 록키산맥, 뱅쿠버, 빅토리아·아일랜드를 잇는 여행에서 나는 사실 끝없이 깊고 흐뭇한 인간미에 매혹되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우리는 한 이웃이고, 다 한 형제인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조주가 만드신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당신 닮게 빚어낸 인간과, 그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얼마나 멋없고 삭막한 세상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선 웃음을 지어 본다.

잔재미없는 일상의 생활에 찌든 상념과, 쫓기며 달려온 몇 십년의 이민생활이 이번 기회로 해서 삶을 즐기며 감사하는 생활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겠다.

알프스산 만길 계곡 아래로 본 비취빛 호수이야기가 그리운 유럽여행은 역시 즐거운 것, 잃어버린 본래의 자아를 찾아 정립시키는 선약이 될는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져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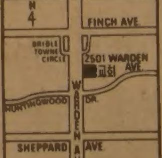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쏘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을(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교회약도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술값 인상! 최고 $1이상

온타리오 주류통제국(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은 12일 각종 주류에 대한 가격을 13일부로 최하 몇센트에서 최고 1달러이상까지 인상했다.

이중 일부 인기상표의 인상된 가격을 지난주와 2년전의 가격과 비교해본다.

주류명	25 ounces, Hiram Walker Canadian Club	25 ounces Bacardi White Rum	25 ounces Chivas Regal Twelve Years Old (Scotch)	25 ounces Beefeater London Dry Gin	25 ounces Smirnoff Vodka	25 ounces Remy Martin VSOP (French cognac)	25 ounces Drambuie liqueur
1980년	$9.35	$8.85	$19.80	$10.25	$8.80	$30.90	$16.30
지난주	$11.60	$11.00	$21.10	$12.25	$11.00	$32.70	$17.90
1982년 10월 13일	$12.40	$11.80	$22.10	$13.15	$11.80	$33.55	$18.75

金聖鍾 作

얼굴없는 死者 ⑪

패기있는 마형사는 김형사와 술잔을…

『한 해가 다 가는데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람.』

나이 많은 형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젊은 형사는 깍두기를 입속에 집어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마형사는 홀몸이니까 괜찮겠지만 난 이게 뭐야. 생각할수록 한심한데…』

『술 드십시오.』

젊은형사는 잔에 술을 따랐다. 그는 불평한다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그런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늙은 형사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김선생님은 내일 내려가시죠.』

『누구 맘대로 내려가. 그러다가 작살 날려고. 낼년에 마무리를 잘해야 퇴직금이라도 받아나가지.』

『김선생님은 자제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젊은 형사는 그를 언제나 김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김형사는 그말이 싫지가 않았다.

『여섯이야. 미련하지. 딸넷에 아들 둘. 딸들은 시집 갔어.』

『고생 많으시겠읍니다.』

『말해서 뭘 해.』

그는 술을 쭉 들이켰다. 나이를 말해주듯 머리칼이 거의 빠져 머리속이 훤해 보였다.

그 나이에 그는 아직도 말단형사로 뛰고 있었다. 그것이 부끄러워 그는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지고 음울한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성질이 급한 그는 그것 때문에 몇차례 사고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을 봉쇄 당했다. 그렇다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는 판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었다. 그는 꾹 참고 일했다. 마치 참고 기다리면 길이 열리기라도 하는듯. 그러나 쉰 두살이 되도록 길은 열리지 않았고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그 나이에 그는 자살을 꿈꾸고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형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수사형사로서 훌륭했다. 그러나 운이 없는 탓인지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언제나 그모양 그 꼴이었다.

『난 ■제 의욕이고 뭐고 다 상실했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동안 내가 잡아넣은 범인들에 대해 미안한 생각까지 들어. 괜히 그랬다 싶다니까. 적당히 해둘걸 말이야. 마형사도 적당히 해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한창 일할 나이신데.』

『내가? 내가 한창 일할 나이라고?』

늙은 형사는 어이없다는 듯 껄껄거리고 웃었다.

『이거봐. 나이가 사람을 ■게 만드는 줄 아나? 천만에. 이 사회가 사람을 ■게 만들어. 이거봐요. 얼마후에 난 쫓겨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정년퇴직이란 말이야. 그때부터 난 할 일 없는 늙은이로 어슬렁거리겠지. ■난 형사생활 25년이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여수까지 내려갔어. 마형사가 부러워. 내가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겁도없고 패기만만하던 시절을 말이야. 지금 몇이지?』

『서른 다섯입니다.』

『며칠 지나면 서른 여섯이 되겠군. 헌데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

『결혼은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그래? 난 숫총각인줄 알았지.』

『언제 이혼했나?』

『스물 아홉살 때 한번하고 작년에 또 했읍니다.』

朴 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紅燈의 사나이 <87>

금년도 노벨평화상
무장해제 주창자 2명에게

(오슬로)금년도 노벨평화상은 무장해제운동(disarmament campaign)주의자 2명에게로 돌아갔다.

수상자는 멕시코의 정치인 알퐁소·가르시아·로블레즈(71)씨와 스웨덴의 사회학자이며 작가인 전직외교관 알바·미르달(80)여사이다.

미르달여사의 남편 군나르씨도 지난 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노벨상 사상 네번째의 부부 수상자가 됐으며 각기 다른 해에 다른 분야에서 수상한 첫 부부가 됐다.

미르달여사는 66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내각에서 무장해제 담당장관으로 봉직했고 로블레즈씨는 멕시코 전 외상으로 이들은 인류구원의 길은 핵무기등의 무장해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평화상 후보에는 억류된 폴랜드 노조지도자 렉·바웬싸도 끼어있었다.

미르달 여사는 1930, 40년대에 이미 여성동등권을 요구한 여권운동가이기도 하다.

◆금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알바·미르달여사와 멕시코의 가르시아·로블레즈 전 외상.

교민동정

◆조정대(문협회장)=나년간 영업하던 모닝사이드의 가게를 지난 여름 청산, 연달아 톡키산맥 답사(?), 유럽순방을 동분해 다녀오자 "송충이는 역시 솔잎(?)"격으로 최근 오샤와지역의 큼직(?)한 가게(Simcoe Gift & Variety Centre)를 인수, 눈도 코도 뜰 새없을 지경(1261 Simcoe St, N. Oshawa)

◆홍승규(베타와이즈멘클럽 부회장)=모국 방문중, 와이즈맨클럽 세계대회(서울) 참석후 넉달만에 지난 10일 토론토 집에 돌아왔다. 서울 체류중 동생의 생산공장 설립에 주역으로 진력하는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조용철·윤철중=지난7일, 스카보로지역 마캄×쉐퍼드에 도너츠가게 「패밀리·도너츠」(298-3028)를 개업, 매일24시간, 매주 7일간 영업한다.

◆김철수(사업)=지난 주말 블루어거리에서 있은 칼부림사건의 가해자와 이름이 똑같아 몇일동안 곤욕을 치뤘다.

상점을 경영하며 한국인 최초로 도매업에 손을 대기도 한 김씨는 지난주말 새로 산 집을 정리하느라 집에 있었는데 일요일밤부터 새벽까지 "찔렀느냐, 혹은 다쳤느냐"하는 문의전화가 줄이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강 찬(신의상사 컴퓨터 프로그래머)=지난주 새한교회 성가대 총무직을 맡았다. 임기 3년간 열심히 뛰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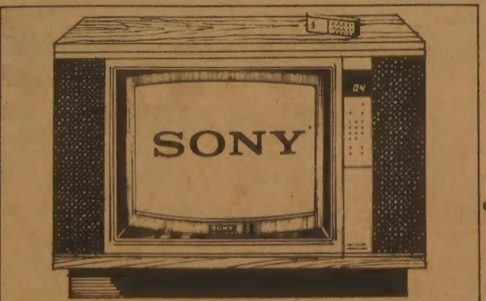
한국일보구독은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윤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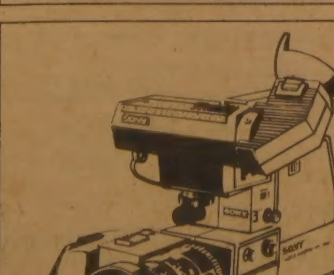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죤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 V. 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추가특별보증기간〉
82년10월15일부터 83년1월30일까지에 한하여 5년간 완전 보증합니다.

"잇단 社會病理 處方없나"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社會淨化 때되면 民間주도로

學園사태 深化의 원인은 (질문)

拷問등 人權유린을 根絶 (답변)

국회는 12일하오 本會議를 열고 사회분야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13일의 사회분야 질문을 마지막으로 本會議의 對정부 질문을 모두 끝내고 14일부터 2차 常委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사회분야에 대한 첫 질문에는 李宰熙(民正) 金永俊(民韓) 金翰官의원(국민) 등이 나서 올들어 잇단 大型事故및 不信풍조, 경찰제도개선, 人權유린근절, 教權확립과 교육여건, 民族史觀定立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대응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사회정화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은 정부의 지원하에서 현재 진행되고있으나 民幹이 조성되면 민간주도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는 학원의 소요사태에 대해 『학생이 우리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못해 과격한언동으로 나오는 경우가있다』면서 『정부는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경주, 대학생들이 실력배양에 전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버마外相등 接見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12일 하오 청와대에서 나이지리아의 알하지·벨로·마이타마·유수프 商務장관을 접견하고 修交勳章光化章을 수여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버마의 우·칫·라잉外相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 李啓哲駐버마대사, 우·틴·툰駐韓버마대사(日本常駐)가 배석했다.

"공무원 停年延長추진"

스즈끼 日首相 돌연辭意

自民結束위해 총재 不出馬선언

【東京=宋孝彬 특파원】스즈끼·젠꼬(鈴木善幸) 일본수상은 12일하오3시 수상관저에서 니까이도(二階堂進) 간사장등 당3역을 불러 오는16일 공고될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천명, 사실상 수상직도 사임할 뜻을 밝혔다.

스즈끼수상의 불출마표명에 따라 집권자민당은 스즈끼수상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고오모또·도시오(河本敏夫) 후꾸다·다께오(福田赳夫) 다나까·다쓰오(田中龍夫) 등 비주류와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등 주류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새로운 수상후보로 신진인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通産相과 와따나베·미찌오(渡邊美智雄) 蔵相,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 官房장관, 다께시따·노보루(竹下登) 간사장대리등이 거론되고 있다.

◇스즈끼日수상

스즈끼수상은 이날 『국내외정세가 어려운시기에 거당체제로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총재선거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움직임이있어 당의단결과 결속을위해 총재후보에 출마하지 않을것을 굳혔다』고 말하고 『하루속히 참신한 새지도자를뽑아 거당적인 체제밑에서 정국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즈끼수상에맞서 고오모또經濟企劃廳장관을 밀어온 비주류는 스즈끼의 갑작스런 불출마선언에 충격을받고 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 있다. 주류3파의 결속만으로 재선이확실시되던 스즈끼수상의 돌연한 불출마선언이유는 분명히밝혀지지않고 있으나 재정재건, 행정개혁등 난제를해결해야하는 시기에 총재선거를둘러싸고 자민당이 분열, 정국혼란이 장기간계속되는 사태를막기위한 결단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스즈끼수상은 또 11월하순으로 예정돼있는 총재선거를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앞당겨실시, 새로운 지도자밑에 당이 결속되도록 돕고싶다』고 말했다.

怪潛艦, 五里霧中

스웨덴 "海底坐礁 가능성있다"

【베르가(스웨덴) 外電=聯合】 2차대전이후 최대의 잠수함 수색작전을 펼치고있는 스웨덴해군은 11일 怪潛艦잡기로 모든 방향이 봉쇄된 해군기지밖에서 기뢰1개가 폭발했다고 밝혔으나 괴잠수함은 계속 잡히지않고있다고 전했다.

스벤·카를손해군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기뢰 1개가 베르가만쪽 22km 스웨덴영해에서 폭발했으며 이는 潛艦이 기뢰부설지역에 접근했거나 스웨덴해군의 원격조정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벨醫學賞 발표

스웨덴 베르그스트룀등 3명수상

호르몬一種「프로스타글라딘」發見

【스톡홀름(聯)】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는 11일 스웨덴의학자 존·베인박사와 스웨덴의 벵트·새무엘슨및 수네·베르그스트룀 박사를 82년도 노벨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롤린스카연구소는 이들이 프로스타그란딘의 연구결과 새로운 생체조직을 형성하는 호르몬을 발견한 공로로 금년도 노벨의학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ANA서울회의 發展의계기를마련

무스타파會長회견

아흐마드·무스타파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 회장은 12일상오 『OANA는 이번 서울회의에 따라 더욱 발전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OANA는 지역통신기구로서 한층 강화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련 타스통신대표의 한국입국에관해 『타스통신은 OANA기술위원회회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열리는 기술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한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회오리속에 말린 日政局

스즈끼 再出馬포기 선언과 自民黨의 向方

非主流의 砲火로 黨內紛…出馬해도 열세

오오히라(大平正芳)수상의 돌연한 사망으로 탄생한 스즈끼정권은 2년3개월만의 단명으로 끝나게 됐다.

스즈끼수상은 12일 하오3시, 수상관저로 니까이도(二階堂)간사장등 당4역을 불러 자신의 불출마의사를 밝히고 ▲행정개혁 ▲재정재건 ▲국제협력강화등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자민당이 거당체제로 이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소비자協同組合육성

民正立法키로 生産者와 직결 보호케

民正議總 연기

體制비판 私見간주

社會漫評

國內문제는 걱정할것이 별로없으니…저거나보자…

地平線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정기총회 공고

재캐나다 선린상고 동창회에서는 82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모든 동문께서는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0월23일(토) 저녁 8 시
장소 : 옥성빈 동문댁 1055 SHAWNMARR RD. #183 MISSI,, ONT.
연락처 : 섭외 옥성빈 274-8439 총무 정성주 276-4373

선린상고
동창회장 서병주

칠순맞이 가족예배

이덕인여사(권사)

저희어머니(이덕인권사)의 7순 생신을 맞아 여러 어르신들과 친지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가족예배와 수연을 갖고저 하오니 많이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때 : 1982년10월23일(토) 정오
곳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주례 : 박희민 목사
⊙예배후 같은 장소에서 피로연이 있읍니다.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큰 아 들	강대길	며느리	임원선
작은아들	강찬덕	며느리	홍영희
세째아들	강찬영	며느리	허 령
큰 딸	강영옥	사 위	정운도
둘 째 딸	강연희	사 위	정효생
세 째 딸	강신옥	〈미국 사 위	이명순
네 째 딸	강성옥	거주〉 사 위	이윤남

〈무료〉 요리강습에 초대합니다

울긋불긋 자연을 수놓은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때에 교민여러 가정에 평강을 빕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하며 저희 한인회 부녀부에서는 어머님들께 잠시라도 위로할 뜻으로 우리 고유의 궁중요리를 같이 배우고 시식하며 낮한때 시름을 풀고자 하오니 아무부담없이 부디 오셔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0월23일(토) 낮12시30분
장 소 : 한인회관 20 MOBILE DR.
강 사 : 조영호 선생
요 리 : 색단자, 구자, 생선찜, 재래식닭찜, 기타.
준비물 : 앞치마

토론토한인회부녀부

초대말씀

삼가 저희 부친 김희몬옹의 칠순 회갑 잔치를 여러 어른들과 친지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1982년 10월23일(토) 오후 1시
⊙장 소: 국제반점(인터내셔널 중국음식점) 421 DUNDAS ST. W.(던다스×스파다이나)

★청첩인: 장남 김성택 며느리 김희선
차남 김영택 며느리 김안나
사위 이혜윤 장 녀 이미지 (미국 거주)
사위 김덕용 차 녀 김경자

"88五輪 民資誘致계획 밝혀라"

國會 本會議 社會문제질문·답변

질문: 不合理 大入개선 용의는 / 滯賃 근본적 解決策없나

답변: 政策자문위 活用하겠다 / 「科學수사綜合案」마련중

國会 錄音

◇李寧熙의원

◇金永俊의원

◇金翰宣의원

▲李寧熙의원(民正) 질문=경제적유택만을 추구하며 문화적유택을 소외시키는 곳엔 가치관의 붕괴현상은 필연적이다. 그職責에 관한 전문기술이나 지식이있는 사람을 채용해야한다는 任用의 원칙은무시한채 학생에게 부담을 얹혀야할지도 모르는 교과지도 담당장학관,학생의 進路안내의 기본조차모르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원, 民族史의 참모습도 모르채 日帝植民史觀을 국정교과서에 담는 學藝官, 문예창작지원사업을 영세민구호대책이나 세우듯 하는 문교부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缺如현상의 보완책은 없는가.

금년12월의 일반행정高試에서 분리된 교육高試는 반가운데에 기왕에 문화高試도 따로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문교부산하의 학·예술원관리업무를 총리실직속으로 하거나 학술원은 문교부에,예술원은 문공부에 관장시켜 업무추진의 전문화를 기할생각은. 문교부는 民族史觀의 정립을위해 그간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교육세와 法定交付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가공무원의봉급을지급하는 사례가있다. 이는 교육세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닌가. 또 時限稅인 이교육세 징수가 끝나는 1986년도까지 학교시설이 차질없이갖추어질수있는가.

학생의 평준화,시설의 평준화,교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만 명실공히 高校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수있겠는데 교사수준化는아직문제점이 많다. 도서관법은 이용자의 편에서 개정되어야지 官의 권위나 관리의 책임과 수고를 덜기위해 改惡되어서는 안된다. 4~5세의 早期교육대상어린이 68만5천명중 18·6%밖에 수용할수 없는 절대수가 부족한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시설을 확장할계획은 없는가.

문화예술인 금고설치와 文藝人年金의 전망은.

문화예술을 즐기는자는 高所得層이라고 보는데 진흥기금은 서민들이즐겨찾는극장·고궁등의 입장료에서 얻어받고있는 말하자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거둬가는 이상현상을 어떻게합리화할것인가. 방송공사법을 개정, 그 수익의 일부를 문예진흥에도 쓸수있게 할생각은 없는지.

6천66억원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赤字없이 치르겠다는 정부의 장담은 너무 줄여잡은것은 아닌가. 대회가 임박해서 서울시민에 큰부담을 안겨주지는않는지. 앞으로 신설될 5개경기장의 內譯과 충당사비를밝히고 民資유치전망도 대답해달라.

해외홍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金永俊의원(民韓)=우리 사회에는 꽉 막히고 비꼬이고 구부러진데가 많다. 거론조차 하기싫은 禹순경의 良民 대량살해사건,張여인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지하철붕괴사건, 각종 인권유린행위등 사건의 연속속에서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病理현상에 대한 처방대책은 무엇인가.

제5공화국 탄생이후 의식개혁운동 청탁배격운동 서정쇄신운동등 각종 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운동이 통치방법인지 국민운동인지 분간키 어려운데 官주도를 탈피하고 민간주도인 자율적인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는지.

개혁조치는 永久不變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개정입법도 모순이 있으면 개정되어야 한다는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의 개념이라고 보지않는가.

경찰의 인권유린행위, 야만적인 고문행위는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근절되어야한다. 아직도 경찰이 前近代的인 고문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이 세금을 조금만 늦게 내도 강제집행을하고 기업이 종업원의 봉급을 좀 늦게주면 근로기준법으로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국가가 입힌 피해변상은 즉시 지급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傷痍여권 소지자의 출국금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문교장관은 亂脈한 대학 입시제도로 「배짱지원」「눈치작전」「도박작전」이란 새로운 용어를 낳게한점, 고교평준화로 교육의 質的저하와 新生 名門校로 不正轉學이란 사회문제를 야기한점, 대학入學定員制로 시설과 敎員의 加重부담과 全人교육의 저해요인이 되게한점, 중고생 교복 완전자율화로 사치심을 조장한 점, 최근의 학원소요사태, 고교생 독서용으로 추천한「素女經」문제등이 그 이유이다.

국무총리취임 1백일이 지난 오늘에도 대학사회는 개선된것이 하나도없고 오히려 학원소요사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그원인은 무엇이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올여름 참혹한 뇌염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발생한환자수와 사망자등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 바란다.

光州사태와 관련,光州교도소에 수감중인 朴某군이 오늘새벽 光州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데 그진상을 밝혀라.

▲金翰宣의원(국민)=지난 한햇동안 사회를 충격과 혼란속으로 몰아넣었던 未曾有의 사건들이 발생하게된 요인은 사회의 不信현상의 팽배,도덕적 타락과 가치의 轉倒,특권의식과 利己주의의 팽창, 행정의 경직성과 자치능력의 부족때문이다.

의식개혁운동의 파급효과를 아직 감지할수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급진적인 의식개혁이 본의아니게 국민들의 가치관을 誤導시키지나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질적인 청소년 善導대책을 실행하기위해 체육부를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라.

예산만 낭비하는 각급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할용의는.

원호성금,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등을 準租稅金이라고 부르는 실정인데 금년들어 모금된 각종 誠金의 액수와 사용처를 밝혀라.

地下鐵공사장사고가 3개월마다 일어나고 있다. 事故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면 殺人행정이요,안전점검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점검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공사진행여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전투경찰을 포함한 10만명의 경찰人力에대한 교육예산이 22억원인데비해 某財閥그룹산하 종업원7만명에 대한 연간 교육예산이 90억원에달한다. 이러고도 과학수사,자질향상을 기대할수있는가.

教權보호특별법제정안에 대한 장관견해를 밝혀라. 대학졸업定員制실시로 재학생 30%를 탈락시키는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도 비율에 묶여 탈락될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學點制로 환원할생각은.

性교육문제는 교육현대화추세에 비추어 중·고교의 남녀공학실시가 필연적인 것으로본다. 요즘의 언론이 몇십년후에 역사적 기록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수있다고보는가.

경기부진,실업자증가에 따라 越冬生計대책이 심각한영세민의 就勞사업을확대하라. 지방이주가 끝난 도시영세민에게 생업자금 2백만원융용자해주기로 한것이 왜 아직 집행되지 않고있나.

해마다 되풀이되고있는 滯拂勞賃의 근본적 해소책은없는가. 塵肺症등 산업병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거액 악질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라.

▲金相浹국무총리답변=학술원과 예술원은 학문과 예술이란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있으며 이를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두는것은 지원기능의 쇠퇴와 學界와 연락관계등이 약화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문교부산하에 두는게좋다.

古典과 文獻은 196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한국민족문화추진회」가 國譯과 보급을 담당하고있다. 교육정책은 수립과 집행과정에일관성이있고 장기적이며 종합성이 있어야한다. 入試제도의 빈번한 교체로 교육정책의 신뢰에 혼선을 가져오게 사실이다.

정부는 교육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長期的안목에서 齊속을 피하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정책자 諮問회의가 亂立,소수인사만 참여하고 정책수립과정보다 事後평가에 비중을 두어왔다.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를 거듭활용하여 운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올림픽기념錢貨에 프리미엄을 붙여 발행한것은 올림픽조직위원법에 법적근거가있으며 외국의 선례도 있다. 성금의 종류는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災害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원호성금 독립기념관성금등이 있으며 신중하고 엄격하게 성금을 관리하고있다.

▲盧泰愚내무장관=경찰의 고문과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국민에게 불안을 끼친데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한다. 女大生 피살사건과 尹노파피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선경찰관의 강력사건해결을 위한 자신들의 명예욕때문에 물의를 야기시킨데대해 죄스럽게 생각한다. 金씨살인사건의 경우 2審에서 15년선고를 받은후 眞犯이 검거됐다. 이를 계기로 자체조사결과 폭행과 가혹행위가 분명히 밝혀졌다. 이사건과 관련, 金씨의 수사과장을 10월5일자로 직위해제했고 형사1계장등 4명을 9월21일자로 파면,형사입건했으며 형사2계장을 파면조치했다.

경찰의 자질향상과 능률제고를 위해 경찰제도를 대폭 개선, 내년부터 실천토록하겠다. 초임경찰관의 경우 현 8週교육을24週로 늘리겠고 순경에서 총경에 이르기까지 총28週의 교육을 68週로 늘리겠다. 先교육 後보직원칙에 따라 모든경찰관의 교육성적을 승진이나 보직에반영토록 하겠다. 의무경찰제도는 시간이지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있으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對民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다.

▲裵命仁법무장관=고문경찰관은 검찰에 송치되는대로 철저히 조사, 罪質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刑訴法의 정신이다. 동시에 단 1건의 重犯인을 놓쳐서도 안된다는게 국민의 여망이다. 결코 양지않은 相反되는 두가지를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가며 수사지휘를 고양시켜 나가겠다. 수사에서 心證수사나 자백위주의 수사는 지양돼야한다. 연행이 될경우 즉시 구속을 하든지 즉시귀가조치를 한든지 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인 수사방법은 용납될수 없으며 엄중처단하겠다.

光州교도소에 수감중인 朴관현피고인은 12일새벽 2시에 사망했다. 朴피고인은 계엄법위반으로 1심에서 5년형선고를 받고 수감중 지난 10월10일 상오10시반께 가슴에 痛症을 호소했다. 교도소내에서 치료중 흉부통증이 계속돼 이날하오7시께 全南醫大병원으로 이송,진찰결과 急性心筋梗塞症으로 판명, 11일낮12시30분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조치로 가료중 12일새벽 2시께 死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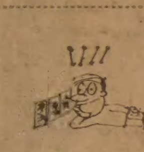
일부외신은 斷食中 사망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것으로 朴피고인의 死因은 發病후 2~3일이위험한 急性心筋梗塞症임을 밝힌다.

▲李奎浩문교장관=제5공화국 출범이래 소요로 인한 휴교는 사라졌고 전체적인 면학분위기도 놀랄만큼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요를 위한 기도는 끈질기고 집요하게남아있고 이따금 표면적인 성격은 더 분명히 드러나고있고 더욱 과격한 시도가 되풀이되고있다.

망상적인 학원소요의 극복은 우리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떤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적인 과제이다. 南北分斷상황아래서 소요를위한 끈질긴 시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우리가만족할 소요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않아야 악순환을면할수가 있다.

메아리

두꺼비 놀이


金昌悅 <編輯委員>

연휴가 끝난 월요일—물론 신문은 연휴가 아니었지만—두꺼비 安義燮화백에게 물었다.

『어디 다녀 왔읍니까』

인사말 겸, 지난 추석 3連休이래의 연재만화 두꺼비를 생각하던터라, 그런 말이 불쑥나왔다.

『어디 가긴…』 안방에 단풍이 피던데…』

그의 대꾸는 언제나 이렇다. 寡黙 아닌「두꺼비問答」이다.

그가 말하는「단풍」은 한글날 連休의 直前 일요일 아침에 실린「두꺼비」의 연장이다. 그날 만화속의 두꺼비는 아들을 시켜 화투장을 사오게 한다. 그중「단풍」넉장을 골라 방구석에 세워놓고,그 敍景앞에 自滿하는 티를 낸다.

두차례 주말 連休를 사이에 두 연휴무사이,두꺼비는 5차례 連休를 그렸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좇는,당연한 뉴스감각이다.

—3連休를 앞둔 30일 (9월) 아침, 두꺼비는 連休를 어떻게 보낼지가 걱정이다. 『첫날은 술먹고…다음 날은 좀 쉬고…그다음 날은 술퍼 먹고…』 이 것이 두꺼비의 連休계획이다.

—어쨌거나 連休마다 놀 두꺼비는 끝내 비명을 지른다. 『연휴고 나발이고… 지겹다. 지겨워』 이 것이 만화의 첫째와 둘째 토막. 다음 두 토막은 의사앞의 두꺼비다. 『어제도 한두종일 덤덤덤했고…허리가 아파서요』

그가 그린 두꺼비의「숨바꼭질」,「덤덤덤」과「안방단풍」에서 뭔가 짚이는 사람이 나만은 아닌듯 싶다.

만화속의 두꺼비는 놀줄을 모르는 우리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논다는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우리가 쓰는「놀다」란 말 자체가 서양사람들과는 좀다른것 같다. 영어의 플레이 (play)나 불란서말의 주에(jouer)는 각기 연주한다 는 따위 예술활동과 스포츠에 두루 쓰인다. 그러나 우리는 피아노를 논다. 는가 축구를 논다. 고는않는다.

지난 9월엔가, 우리나라에 사는 어떤외국부인이, 영어로 번역 못할 우리말의 묘미를 말한글을 姉妹紙 코리아·타임스에 실었다. 그중 예로 든것이「놀다」였다. 누구네 집에「놀러간다」고 할때, 그한국적인 함축을 살리기 위해서「영 홈 놀」이란 홍글리시 (한국式영어) 가 외국인 수녀들사이에 퍼졌더라는 얘기다. 과연「놀러간다」는 말에 꼭 들어맞는 영어는 있음직 않았다.

사전에서 보면「놀다」의 뜻은 여러갈래다. ①재미있게 지내다 ②일을 않고 세월을 보내다 ③직업이 없다 ④쓰이지 않다 ⑤유흥에빠지다 등등…

이런 관념은 儒敎的인 근검절약 思想을 밑에 깐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전통이 살아있을때의 우리나라 사람을 관찰한 開化期 서양사람들의 인상은「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란 것이 지배적이었다. 놀줄 모르는 사회는 일할줄도 모른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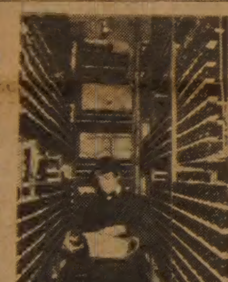
이제 한국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정평이 났다.「勤勉의 신화」를 쓴 스웨덴의 경제평론가 하칸 헤드버그는 세계제1의 일벌,일본사람들이 하루10시간일할때,한국사람은12~16시간 일한다고 감탄했다. 80년의 ILO(國際勞動機構)자료는 가맹국중 週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로 한국의 53·1시간을 꼽았다. 일본보다 12·7시간이나 많다. 그나마 한국은 남자(52·8시간)보다 여자의 노동시간 (53·5시간)이 더 긴 흔치 않은 나라다.

이만하면 아무도 한국사람이 일할줄 모른다고는 못할게다. 그러나 일할줄만큼 놀줄도 아는지는 두꺼비가 묻고있다.

「놀다」는 결코 일하는 시간의 남은 시간이 아니다. 다음 날의 일을 위한 휴식도 아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을 뿌리는 잔치는 더더욱 아닐것이다.

아쉬운 것은「놀다」의 적극적인 뜻이다. 그 것은 틀에 매인 사람들의 인간회복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회를 지배한 것이「일하는 論理」라면, 그 못지 않게「노는 論理」가 필요하다.「일하는 美德」만이 아니라,「노는 美德」을 위한 인간교육·사회교육이 아쉬워진다. 일할줄만 아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곧 物理的 자동차도 헤드라이트가 빈틈없는 자동차와같다. 마찬가지로 놀줄 모르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다름 없다. 어느것이나 사람을 위한 구실이 온전치 못하다.


◇創業 4백년 맞는 레스토랑倉庫

有名한 파리의 레스토랑 토르·다르장이 올해 創業 4百주년을 맞이했다. 오랜 歷史를 자랑하듯 이레스토랑 地下창고에는 13만병이 넘는 각종 와인이 저장되고 있다. 【키스톤=本社】

日皇太子妃를 찾습니다

日人·佛教·神道教人이면 合格線

◇나루히또황태자.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의 손자 나루히또군은 올해 22살의 대학원생. 내년 3월 대학원을 졸업하는대로 결혼할 예정인 나루히또군의 배우자선택 문제를두고 일본신문들은 전망과 추측이 분분하다.

월간지「現代」가 열거한 황태자비의 조건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일본인일 것, 종교는 佛教나 神道일것, 세례받은 기독교인의 경우 신앙을 포기하지않으면 안되는것으로 되어있다.

배우자는 또 유전병이 없어야하며 남자손이 많은 가계출신이면 더욱좋고 황태자보다 다소 연하이어야하며 키는 하이힐을 신고도 황태자(신장1·63㎝)보다 작아야 하므로 약1·57㎝이하라야된다.

배우자는 그밖에 외국어 특히 영어와 불어에 유창해야하고 남녀공학출신은 바람직하지않으며 직장여성은 안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東京=AP】

海外토픽

3천년전 神殿발견

★埃서 民家짓다 기둥드러나

최근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남쪽에서 약3천여년전 람세스2세에의해 건립된것으로 보이는 고대이집트신전이 우연히 발견됐다고.

알·아크바르지에따르면 이 지역에 살고있는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콘크리트기초를 하던중 신전의 기둥을 발견했다는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달려가 땅을 파헤쳐본 결과 신전의 기둥과 벽이 드러났으며 거기에는 상형문자와 람세스2세의 모습이 그려진 화가 발견됐다고.

람세스2세는 기원전 1301~1235년의 이집트를 통치한 王이다. 【카이로=UPI】

폴란드警察소속복서 美망명

自由勞組등과 싸울事態우려

폴란드경찰소속의한 아마복싱 국가대표선수가 앞으로 폴란드자유노조원들을 비롯한 민간인들과 싸워야할 사태를 우려, 미국으로망명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지가 독점보도.

이 신문은 크지초프스키·폴란스키(21)라는 이 선수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당초 실종된것으로 알려졌던 그가 최근 미국의 폴란드系 주민들을 통해 망명을 요청했으며 망명을 결심하게된 동기는 폭동진압경찰(조모)에 소속된 처지로 보아 앞으로 동포들과 대처해야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폴란드 로츠시출신인 폴란스키 선수는 지난6일 미국선수단과의 시합을 마친후숙소를 빠져나와 망명을 요청했으나 로츠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우려,정치적인 발언은 삼가고있다. 【뉴욕=AP】

姙婦用군복 支給

★美陸軍 임신女軍위해

美陸軍은 임신중인 女軍들에게 임산부용 군복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미군기관지 스트라이프스지에 따르면 육군관계자들은 임산부용 군복을 ... 이 비록 얼룩무늬의 전투복은 아니며 ... 【UPI】

女社員들 담배公害

★연기속근무 한갑피는꼴

애연가를 남편으로둔 부인들은 하루평균 1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셈이되며 담배연기 자욱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의 경우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것과 같은 피해를 본다고 도오쿄대학의 한 교수가 주장.

가즈가 히또시교수는 최근 도오쿄의 국민학생및 그들의 어머니 8백94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하고「피동적흡연」이 심각한 사회 건강문제로 대두되고있다고 강조. 【時】

배우監督 라마스도 63세…癌으로

배우겸 감독인 페르난도·라마스가 9일 지병인 암으로 입원중이던 UCLA 메디컬센터에서 사망했다. 향년63세.

병원 대변인은 라마스가 4주전 심한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했으나 이미 암증상이 악화된 상태여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라틴계 미남인 아르헨티나계의 라마스는「부자와 미녀」그리고「아름다운 사람」을 비롯해「메리·위도」「검투사」등 1950년대의 뮤지컬과 코미디물 주연급 스타로 최근 NBC의 새 TV연속극「가발런」에서 로버트·유리크와 촬영중 입원, 사망했다. 감독으로도 활약한 라마스는 지난 2년간 TV극「플라밍고·로드」「메버릭」「콘트·레드」등을 연출했다. 【AP】

헨리8세旗艦인양凱歌

英해협 水葬 4백37년

암갈색참나무…「메리·로즈」號 / 7百톤級…7백여 海軍도 水葬

◇수중 고고학의 최대개가로 평가되고 있는 메리·로즈號.

◇잠수장비로 완전무장한 찰즈英國황태자가 10일 메리·로즈號의 선체인양작업 성공직전 물속에잠긴 선체를 조사하기위해 잠수할 채비를 갖추고있다. 【포츠머드(英國) UPI=聯合】

4백37년동안 영국 포츠머드항구 앞바다에서 잠자고있던 헨리 8세旗艦이 17년간에 걸친 힘든 작업끝에 11일인양 되었다.

암갈색의 참나무로 만든 이군함의 이름은 메리·로즈號.

대포가 91문이나 장치돼있고 전장82m, 총톤수 7백톤급의 메리·로즈號는 1545년 7월19일 프랑스함대와의 해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었다.

당시 국왕이던 헨리 8세는 메리·로즈號가 7백여명의 영국해군을 태운채바로 코앞에서 가라 앉고 있는 것을 포츠머드언덕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메리·로즈號는 당시 영국왕조인 튜도르왕조가 자랑하던 최신예군함이었다. 이번 인양작업현장에 찰스황태자가 직접 나타나 작업을 지켜본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찰스황태자는 헨리 8세 가 서있었던 바로 그자리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보았다.

메리·로즈號 인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것은 지난 1966년. 심해 잠수장치의 개발에따른 해저탐사의 성행으로 바다속유물을 찾는 수중고고학이 본격화단계에 접어들면서 부터였다.

79년에는 찰스황태자가 위원장이되어 메리·로즈號 인양위원회를 구성, 인양작업에 한층박차가 가해졌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6백80여만달러(한화51억여원상당).

수중고고학자들은 메리·로즈號의 인양은 수중고고학이 지금까지 이룩한 최대의 개가라고 평하고 있다.

메리·로즈號야말로 16세기 중세유럽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필수있는 타임·캡슐이기때문이다.

수중고고학자들은 메리·로즈號에는 대포로부터 병사들의 머리에 붙은 벼룩에 이르기까지 모두 1만7천여점의 유물이 수장돼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메리·로즈號가 누워있던 영국해협은 조류가 세고 돌풍이 심해 탐사작업은 악전고투였다.

인양에는 특별임대한 대형 해상크레인이 동원되었다.

인양시기도 조류가 최저수준을 이루는 때를 기다려야만했다.

만약 이번 인양작업이실패했다면 조류때문에 오는 24일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그때가 되면 임대크레인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인양작업은 더늦어질뻔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본격적인 인양작업이 늦어지자 현장에있던 찰스황태자는 직접 잠수복을 입고 잠수해 메리·로즈號를 점검하기도했고 현장에 나와있던 수천 영국시민들은 애를 태워야 했다.

이날 영국TV들은 인양작업을 현장중계했는데 인양된 메리·로즈號는 일단 포츠머드로 인양된다음 철저한 복원작업을거쳐 해양박물관에 전시될것으로 알려졌다.

메리·로즈號는 영국이 자랑하는 해전의영웅 넬슨제독의 기함 빅토리아號곁에 전시된다. 【李炳圭기자】

순복음카나다교회창립 4 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김남수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 4 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모습과 책임을 새롭게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념잔치를 마련하였읍니다. 강사 로는 2000여 성도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셔아오니, 부디들 오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비옵니다.

조이식 목사와 성도일동이 초대합니다.

주제 :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 시 : 1982년10월17일(일) 저녁7시
18일(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19일(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20일(수) : 새벽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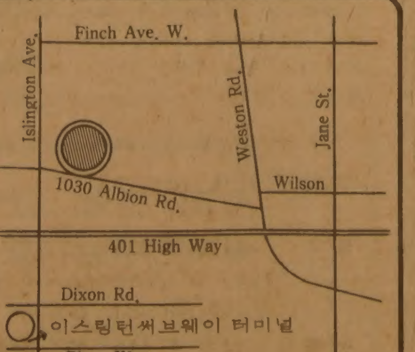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

1030 Albion Rd., Rexdale

☎ : 교회 743-4813 목사관 745-3884

⊙성회장소 약도

북 서 동 남



*Islington과 Albion이 마나는 곳에서 우편으로 50m지점에 교회가 위치 하였음.
*한국식품서부대리점 바로옆.

癌豫防法 12가지

日 癌연구진흥회의 「處方法」

過食말고 균형있는食事

같은 종류의 음식은 계속 먹지말것
비타민 A·C와 섬유질음식 섭취를

日本癌연구단체의 하나인 財團法人『癌연구진흥회』는 암은 잘못된 생활환경에서 온다는 가정아래 암을 예방하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처방법을 만들어냈다.

「12가지 암예방법」은 암에대한 「3가지 상식」의 기초위에서 작성된것이다.

첫째상식은 우리의 생활환경에는 암의 원인이되는 물질이 무수히 있다는것. 發癌물질은 흔히 극히 희귀한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음식,환경중에 미소하지만 무한히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발암물질은 쌓이는속성이 있다는것. 미세한 발암물질 그자체로는 별문제가 안되나 이것이 쌓이면 큰 害因이된다는 것이다.

세째는 이런 발암물질을 피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3가지 기본상식에 의해 만들어진 12가지 암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균형있는 식사를 할것. 천연물질중에는 세포의 異常변화를 일으키는것, 즉 原發性 發癌물질이 들어있는것도 있고 이런 이상변화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다.

發癌물질이 들어있는것을 찾아내 안먹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균형있는 식사를 하면 中化작용을 일으켜 發癌물질을 무력하게 만든다.

②같은 종류의 음식을 계속 먹지말것. 고사리에는 微量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끼니마다 이 고사리를 먹는다면 분명히 위험할 것이다. 아직 암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때문에 한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것은 위험하다고 할수있다. 특히 약이나 약초를 장기복용할때는 조심해야한다.

③過食을 피할것. 쥐의 실험결과 음식을 정량의 60%만 먹이는 그룹과 1백% 먹이는 그룹중 60%만 먹는 쥐그룹의 발암률이 훨씬낮은 것이 판명됐다.

④過飮을 피할것. 프랑스의 한 조사에 의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지역과 이를 덜 마시는 지역을 비교해본 결과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지역이 훨씬 食道癌이 많았다. 독일의 명주인 맥주에도 발암물질인 니트로솜이 微量 발견됐다.

또한 술은 암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학설이있다. 같은 초기암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덜 마시는 자를 비교해보면 많이 마시는 측이 훨씬 암의 진행이 빨랐다.

⑤과다 흡연을 금할것. 담배는 결정적인 발암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있다. 체질에 따라서는 담배를 많이 피워도 암에 걸리지 않기도 하지만 같은 체질의경우 담배를 피우는 쪽이 안피우는 쪽보다 훨씬 암에 걸릴확률이 높다.

⑥적당한 비타민A, C와 섬유질음식의 섭취. 비타민A는 기관지세포의 偏平上皮化를 막는다는것과 비타민C는 체내의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섬유질음식은 便의 腸內체류시간을 단축시켜 발암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⑦염분의 과다섭취금지. 미국의 위암발생률이 적어진 이유중의 하나가 소금에 절인음식을 안먹게된것으로 알려졌다. 과다한 염분섭취는 「목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음식과 함께 암의 원인이 된다는것이다.

⑧음식의 탄부분은 먹지말것. 탄부분을 태워본결과 발암원인이 되는 이상물질이 생성됐다. 고기나 생선을 먹을때 탄부분은 먹지말아야한다.

⑨곰팡이가핀음식은 될수있는대로 삼갈것. 땅콩의 썩은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프라톡신은 간암의 결정적인 원인이된다. 조수수등도 곰팡이가 슨 경우는 먹지 않는것이 좋다.

⑩지나친 日光노출은 해롭다. 태양의 자외선은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흡수하면 발암원이 되기도한다. 미국의 텍사스지역에 피부암이 많은 원인은 이런 지나친 피부노출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⑪과로를 피할것. 과로는 人間본래의 투병력을 약화시킨다. 인간은 체내에 일어나는 異常현상을 자연치료할수 있는 저항력을 갖고있다. 그러나 피로하면 이런 저항력이 약해진다.

⑫몸을 청결하게할것. 특히 자궁암은 성교후 불결함을 지속시킬경우 발생한다는 이론이있다. 자궁암은 또교육, 빈한층에 많다.

「申重鉉과뮤직파워」멤버축소
전속社도 地球에서藝一기업으로

◇申重鉉

○…록크·뮤직의 다양한 연주와 하머니를 이룬 노래로 각광을 받고있는 그룹「申重鉉과 뮤직파워」가 팀을 정비하고 전속사를 옮기는등 변모를 꾀하고있다.

지금까지 9인조의 대식구를 거느려온 이그룹은 申重鉉을 중심으로 김영진 (베이스 기타) 정현수(리듬 기타) 한봉(드럼)등 4명으로 멤버를 축소개편하고 전속사를 地球에서 大陽산하 藝一기업으로 옮겼다.

申重鉉은 「국내최대의 그룹을 이끌다보니 內實이 어려워 팀을 정비했다」며 세계의 음악추세에 따라 로크에서 한국적인 해비·메탈스타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코피 한잔」「님아」「아름다운 江山」등 많은 히트곡을 내놓은 申重鉉은 새 멤버가 부를 「한강」을 준비중이다.

混血그룹「咸重亞…」멤버늘려 다시활동

◇咸重亞

○…혼혈그룹 「咸重亞와 무서운 아이들」이 멤버를 4명에서 7명으로 증원, 새로운 활동에 나섰다. 김택준 (베이스·색서폰)임진 (오르간, 트럼피트) 석성우 (피아노)등 3명을 새로 영입한 이들은 약3개월간의 지방순회공연을 마치고 최근귀경했는데 멤버를 크게 늘린후 힘과 기교를 겸비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받고있다. 「咸重亞와…」는 4인조시절 발표한 「사랑은 정에 울고」가 팬들로부터 좋은반응을 얻자 새멤버로 다시 취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崔炳傑 新曲集내놔

○…「지금 난 몰랐었네」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 崔炳傑이 2년만의 공백을 깨고 새노래 「회전 목마」「생일선물」을 발표했다. 작사·작곡을 겸해온 그는 이번 신곡집에도 「아무말 안해도」「신야간열차」등 자작곡을 함께 담았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연예話題

「아메리컨 포크 페스티벌」 14·15일 國立극장서 公演

미국의 전통적인 민속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아메리칸 포크 페스티벌」이 14일·15일 이틀간 하오7시반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이번공연에는 「조 코미어 트리오」「벨리·랩플러즈」「피드먼트 빅·댄서즈」등 3개그룹이 참여한다.

이들은 도시재즈와 컨트리블루스, 그리고 스코틀랜드풍의 경쾌한 음악을 선보인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미국여러지역의 민속음악과 춤이소개되는데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만돌린등의 악기가 동원된다.

◇아메리칸 포크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피드먼트 빅 댄서즈」.

女優머천트 死亡 사인은 過飮

○…英극작가 해럴드·핀터의 전처이며 연극영화배우였던 비비언·머천트(53)가 7일 사망했다.

런던 남부 사우드와크의 검시관 데이비드·버논·포스터박사는 『머천트는 불행히도 치사량이 넘도록 술을 마셨다』고 밝히고 『사체를 병리학적으로 검시한 결과 술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머천트는 14세때 제인·에어의 작품에 아역으로 출연, 무대에 데뷔했으며 1960년대초 남편의 작품인 「방」과 「귀향」「연인」「힐파티」등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올랐다.

그는 또 1966년 마이클·케인과 영화 「알피」에 출연, 아카데미상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사건」「프렌치」등에 출연했다.【AP】

한市民이 自費로 作詞·作曲 건전歌謠「富强한나라」보급

평범한 한 시민이 잘사는 나라 건설을 기원하는 건전가요 「부강한 나라」를 작사·작곡·제작해 보급하고 있어화제. 慶南馬山에서 講民제약사를 경영하고있는 李淳弘씨가 화제의주인공으로 「개척정신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발전에 진력할수 있는 국민상 정립에 제작의 도가있다」고. 佛子인 李씨는 이에 앞서 찬불가 「깨우쳐 따르리」도 작사·작곡해 보급해왔는데 각곡 「보고싶은 어머니」를 준비중이라고.

새디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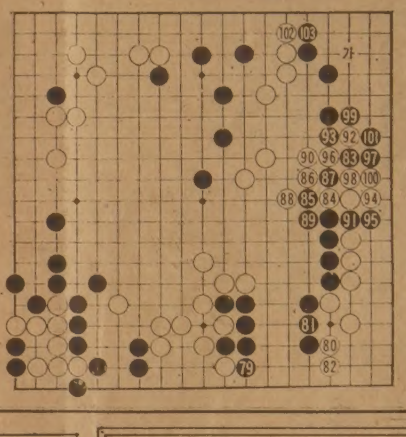
■닥터·후크의 「어둠속에서」=「청바지로말하지요」「오늘밤을 함께」등으로 인기를 얻은 7인조그룹 닥터·후크의 새앨범. 「밤의 열기」「추억에 사로잡혀」「러브라인」등 9곡수록. 여인의사랑과도시생활을 섬세하게 묘사한 앨범이다. (成音)

■에디·머니의 「어쩔수가 없어요」=에디·머니가 2년간의 공백을 깨고 4번째로 내놓은 앨범이다. 「그대는 떠나가고」「당신도 그럴수 있어요」등 11곡수록. 「내 인생의 조각」만 부분은 빌·보드차트20위안에 들어있는 노래다. (地球)

名人战 第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1局 第7譜 80~103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黑4단은 요즘 시간을 충분히 남기는 편이고 특히 한세에 몰렸을때의 끈기는 사뭇 무서운바가 있다. 한편 徐6단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성급성[illegible] 때가 많다. 이바둑도 黑79까지 불과 57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徐6단의 소비시간은 고작 17분. [illegible] 몇번인가 완착을 범한것도 속기가 빚은 탈로 생각될 정도였다. 하기야 시간을 배이상 더쓴 黑4단도 마찬가지로 의문수를 두었지만—. 白80, 82로 귀를 지킨수는 좀더 전

白 大損을 自招

국적인 [illegible] 필요했던 곳이다. 국수편에 따르면 白80으로는 우상귀 「가」 자리에 침입할 절호의 찬스였다고 한다. 黑83으로 보강된 다음에도 白「가」의 침입이 아주 해소된것은 아니지만 83쪽이 가해진 그만큼 [illegible] 어려워져서 침입하는 수단이 [illegible] 리하다는 것이다. 徐6단은 우하귀를 白80, 82로 지키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겠으나 너무 소극적인 판단이었다는게 중론이다. 그리고 보았다. 白84다음의 白86이 심한 자전자충. 이수로는 그냥 白88로 뛰어야 하는것을 徐6단은 黑96에게 아대는 수에 기분을 내었을뿐 黑95로 몰려 실리를 크게 잃고말았다. 黑103까지, 白은 손해만 자초하여 어렵게 바둑이 되어버렸다. 【一凡】

533—2361

당신이 결정합니다

NOV 8TH

시 선거
월요일
11월 8일

당신의 이름이 투표자 명단에 있읍니까?

당신은 토론토시에서 투표자격이 있다. 만약 당신이 카나다 시민권이나 영국국민이며; 나이가 11월8일 이전에 18세거나 그이상 될 경우:

- 1982년 9월7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토론토 시에 살았을 경우 또는
- 당신이나 당신배우자로써 거주는 안했으나 토론토 시내 토지주인이거나 또는 차용자 일때.

당신주변 도서관, 학교, 소방서, 우체국에서 투표자 명단에 당신 이름을 체크하십시요 또는 367-7800으로 전화하십시요.

투표자 명단 정정은 평일에는 다음에서 작성될수 있다.

다운타운
시청 – 오전8시30분–오후 8:30
동부지역
소방서 17, 1904 Queen St. E.
북부지역
소방서 28, 16 Montgomery Ave.
서부지역
소방서 14, 1285 Dufferin St.
오후 2시30분–오후 8시30분

투표자 정정신청서 마감날은 10월20일(수).

Roy V. Henderson
City Clerk and
Returning Officer

CITY OF TORONTO

고종옥신부 환송 파티

14년간 토론토의 종교계뿐 아니라 교민사회를 위해서도 문화적, 사회적으로 봉사의 공이 큰 고종옥(마태오)신부께서 LA로 전임되시게 되어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신자뿐 아니라 일반교민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10월30일(토) 하오7시
곳 : St. Paul성당 강당
(83 Power St. Queen St. E. Tor.)
초청대상 : 일반교민및 교우
회 비 : 무료 (칵테일 파티)
※단 Cash Bar 있음.
※개별초청 생략

● 제1부는 간단한 환송식
● 제2부는 고신부님을 모신 댄스파티

준비위원 : 천광호·신성열·김시몬·정만봉
김종욱·허영식·김문고
한맘천주교 대건회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사—새벽1시까지)

제3회
토론토 시내교회 중·고등부
성경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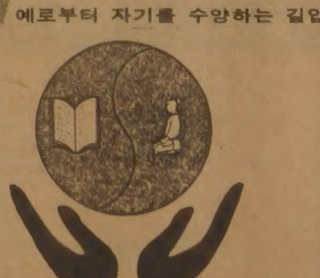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 저희 교회 청년회에서는 토론토 시내교회 대항 중·고등부 성경퀴즈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1. 대회일시: 1982년 11월6일(토) 오후1시–4시
2. 장 소: 토론토제일한인장로
3. 참가자격: 토론토 시내교회 중·고등부 학생 (각교회 대표 4명)
4. 퀴즈범위: 구약—출애굽기, 신약—로마서(우리말과 영어사용)
5. 신청방법: 별지신청서를 10월30일까지 본교회로 우송바람.(전화접수 가능함)
6. 참 가 비: 교회당 20불. 신청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요.
7. 전화접수및 문의: 이전학 (266—8925)
공병화 (626—5382)

토론토제일장로교회 청년회
●주소: 68 Collinson Blvd. ●전화: 636—1724
Downsview, Ont.

지식을 쌓고 무도를 익힘은
예로부터 자기를 수양하는 길입니다.



장학기금을 위한
토요일저녁

● 때 : 10월23일 오후7시
● 곳 : 뉴 서울

■ 디너
■ 춤과 여흥
■ 태권도 시범 및 이야기들
(태권도의 오늘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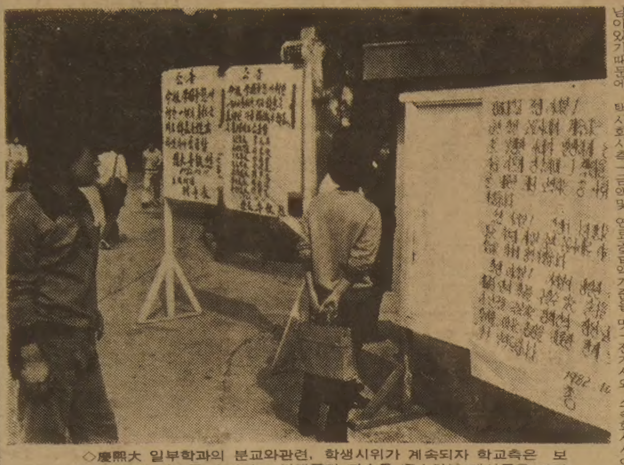
회비 : $25.00
티켓구입처 : 이경태태권도장
☎ : 483—4002. 759—2500

특별출연
고전무용가
김미영 선생
(오고무)

주최 :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무도회

"택시超過입금액 返還하라"
法廷싸움서 運轉士가 승소

大法院 「부당利得金반환 請求訴」에 선고


◇慶熙大 일부학과의 분교와관련, 학생시위가 계속되자 학교측은 보직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학생들의 자숙을 호소하는 게시문을 교정에 공고했다.

「택시입금액 超過분」을 둘러싸고 택시회사와 운전사간에 벌어진 법정싸움(82년3월24일자 본보10면보도)에서 운전사가 승소, 연간30억원규모라는 초과분을 요구하는 2만여건의 같은 송사가 무더기로 쏟아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金重瑞 대법원판사)는 12일 서울道峰區水踰洞48의22 국제운수(대표 金圭元) 소속택시 운전사 金容官씨가 이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시가 지난 80년5월 전국자동차노조 서울시택시지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1일입금액및 유류공급량등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리면서 그 시행기간을 1년으로 정한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볼수없다고 판시, 동결정을 무시한 회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산하 2백여개 택시회사 소속운전사 2만여명은 金씨와같은 소송을 낼경우 택시회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수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지난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택시운전사 월급제아래서도 월 사납금및 택시회사의 유류공급원칙은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택시회사측이 유가나 택시기본요금이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월사납금을 인상하려할때 운전사들이 대항할수있는 법적명분을 마련된점에서 주목된다.

원고金씨는소속회사인국제운수가 『유가가인상되었고요금이 올랐으며 노조분회장과 합의했다』는 이유를들어 서울시가80년5월조정결정한입금액및 연료공급액기준을 멋대로어기고 입금액을 인상하거나 유류공급액을 줄여 80년7월3일부터 81년1월29일까지 13만8천4백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돌려주어야한다고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 서울시의 조정결정은 운전기사와 소속회사사이의 입금액, 유류부담등을둘러싼 노사분규를 방지하기위해 내려진것이므로 국제운수가 노사협의만으로 조정내용을 변경할수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0년5월8일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와 서울 택시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었는데 근거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신청해야하며 그조정결정에 따라야한다」는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이었다.

당시 서울시의 조정결정내용은 80년5월8일부터 81년5월7일까지 1년동안 ▲택시1대당 1일입금액은 5만7천원으로하고 ▲1일택시1대당 휘발유40ℓ(LPG는50ℓ)를 회사가 공급해주며 ▲운전사일당은 1만1천원으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이 이기간동안 석유값또는 택시기본요금인상때마다 연료를 감량공급하거나 입금액을 올려받는데서 택시회사와 노조간에 분쟁이 시작되었던것.

노조측이 택시회사의 부당성을 지적, 서울시에 진정을내자 서울시는 『조정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택시회사에 지시했는가하면 택시회사측의 질의에대해서는 「수입이 많을때는 입금액을 더 올릴수있다」는 상반된 회답을 내리는등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金씨의경우와같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된것이다. 【崔奎植기자】

油類 감량供給·入金額인상 不當
年30억원臺 2만여件 訟事대기

慶熙大 水原캠퍼스移轉반대騷擾확대
補職교수 28명 辭表
副총장등 7명수리, 安총장 辭表수리 보류

慶熙大는 12일상오 긴급재단이사회를 소집, 최근 학내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을지고 제출한 安致烈총장의 사표수리를「사태수습이 끝날때까지」보류하기로 의결했다.

慶熙大는 이에앞서 11일하오8시 학처장회의를 소집, 28명 보직교수전원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지고 安총장에게 사표를 제출, 그중 李元卨부총장, 朴起鉉학생처장, 徐聖漢사무처장, 韓甲洙교무처장, 白南哲공대학장, 朴東俊문리대학장, 金洸來산업대학장등 7명의 사표는 수리가됐다.

慶熙大는 공대, 산업대등 2개대학 12개학과가운데 공대건축과등 9개학과를 水原캠퍼스로 옮긴다는 계획아래 83학년부터 해당학과 신입생수업을 水原캠퍼스에서만 실시키로 했는데 학생들은 「사실상 폐과되는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등으로 지난6일부터 교정에서 연일 이전반대시위를 해왔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던 지난9일 정오께는 정경대강의실에서 학생 2백여명과 경찰이 충돌, 학생 1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2일현재 배영임양(21·경영학과2년)등 2명이 慶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한편 학교측은 보직교수들의 사표수리에따라 이날 「학생이 사망했다」는등 유언비어가 나도는가운데 계속된 소요사태로 본교는 존폐의 기로를 가름하는 위기에 봉착했다」고지적하고 『총장을비롯한 해당보직자는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한편 보직교수의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李圭浩문교부장관은 지난11일하오 尹永植 재단이사장과 安총장을 불러 『조속히 학원질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했다.

醫保환자 特室料 줄다리기
기준실滿員 上級室 입원…差額싸움
保社部 "돌려주라" 延世의료원 "못돌려준다"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병실료 차액을 둘러싸고 보사부와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환급하라』, 해당의료기관인延世의료원은 『환급할수없다』고 팽팽히 맞서고있다.

이같은 대립은 의료보험실시 5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어떤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같은유형의 무더기 거부사태가 불수도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사건의 발단은 延世의료원이 지난해9월25일부터 20일간 입원, 뇌혈관수술을 받고 퇴원한 江原道 春川市 교사 李錦載씨(48)의 부인 朴玉子씨(42)에게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기준병실이 없자 상급병실에 입원시킨 8일동안의 병실료차액 11만6천원과 의보수가로 인정되지않는 수술재료대등 모두 16만4천9백95원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延世의료원으로부터 朴씨의 진료비청구를받은 의보관리공단은 심사결과 朴씨로부터받은 진료비 1백60만원가운데 16만4천9백95원은 부당하다고판정, 보사부고시에 따라 환급을 지시했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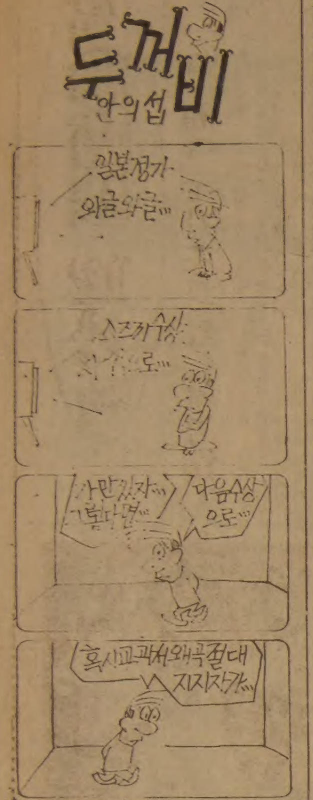
그러나 연세의료원은 환급을 거부키로하고 이같은 사유를 병원장이 서명한 정식공문을통해 보사부와 보험공단등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연세의료원측은 환급거부 이유에서 ▲전국각지에서 보험환자들이 몰려들어 기준병실은 항상만원이고 ▲이같은 병실형편에서 환자를 고급병실에라도수용, 진료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라는 의료윤리문제가 발생하며 ▲특정수술재료를 의보수가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보험제도에 따른 의권(醫權)침해로서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되고 ▲李錦載씨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을얻어 상급병실을 사용했으므로 당국의 환급지시에 응할수 없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보사부당국은 이에 대해『요양급여기준은 보험재정보호를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며 연세의료원이 계속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 의료원에 지급할 보험환자진료비중 해당금액을 제해서라도 환자측에게 환급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기준병실이 만원으로 환자가 본의아니게상급병실에 입원할경우 환자측으로부터 상급병실료를 징수할수없도록 되어있고 진수할 경우는 환급도록규정돼있다.

李씨는 부인朴씨의 입원과 관련, 모두1백만원을 연세의료원에 납부했는데 그중80만원이 의보수가의 적용을받지 못하는 특진료였던것으로 진료비면세서는 밝히고 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892
H245-3539

"青信號때 橫斷路 보행자만 保護
車體 진입돼야 中央線침범 간주"
輪禍특례법 補完

大檢은 12일 지난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한국일보 9월9일자11면 머릿기사)을 보완하기 위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과 경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또 안내양 과실에의한 차내안전사고와 사망자 가없는 자동차 전복등의 대형사고는 처리지침으로도 처벌할수 없는 법의 맹점을 해결할수없다고보아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 지침에따르면 특례법상의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규정한대로 횡단보도 표지판과 건널목표지선이 모두 설치된곳으로 엄격히 해석하도록 했으며 횡단보도의 범위도 건널목표시선의 양측끝으로부터 국한하고 이 표시선으로부터 약간만 벗어나도 횡단보도가 아닌것으로 규정했다.

또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보행자 정지신호일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정지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는 특례법상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진행신호 (파란불)가 깜박이거나 정지신호(빨간불)로 변경된 경우에 사고가 났을때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토록했다.

이처리지침은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볼수없으므로 이들을 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횡단보도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하지않도록 했다.

또 특례법상의 면책예외조항인 중앙선침범은 차바퀴가 아닌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었는지 따지지말고 차체가 넘어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했고 추월이 허용된 중앙선을 넘어가 「보행자」를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선침범으로 보지않도록했다.

이 처리지침은 이밖에 인도돌진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다른 중과실이 없는한 특례법상의 면책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처벌하지 않도록했다.

지난1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포함)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운전자가 ▲안전표지위반 ▲중앙선침범 ▲20㎞이상 속도위반 ▲추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상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또는 약물중독운전등 8개중과실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한 형사처벌을 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방母女 被殺
옆의 長男은 무사…집주인이 발견

【大田】12일상오7시30분께 충남大德郡新灘津邑坪村里1의636 김상만씨(45)집에 세들어 사는 이기동씨(33)의 부인 김효숙여인(29)과 딸 유미양(2)모녀가 목졸려숨져있는것을집주인 김씨가발견, 경찰에신고했다.

집주인 김씨에 따르면 이날오7시께 숨진 김여인의 남편 이씨로부터 『서울에 다녀오겠으니 아들 선웅군에게 아침밥이나 먹여달라』는 전화가 걸려와 이씨집 방문을 열어보니 모녀가 숨져있고 장남 선웅군(5)은 그옆에서 잠자고 있었다는것. 【聯】

부부싸움끝에 아들때려致死

【木浦】全南海南경찰서는12일 전남海南郡松旨면 S국민학교교사 河善雨씨(37)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河교사는 지난 8월 3일밤 11시께 부부싸움끝에 부인 池福任여인(36)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 아들 鍾錫군(15)의 머리등을 때려 다음날상오 6시께 숨지게한 혐의이다. 이같은 사실은 부인 池여인이 지난 4일 경찰에 탄원함으로써 밝혀졌다. 【聯】

자기집沐浴湯서 부부變死

【安東】11일하오4시께 경북安東市太華洞410 權在明씨(43)집 목욕탕에서 權씨와 부인 문국자씨(35)가 숨져있는것을 權씨의 딸 五秀양(1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五秀양에 따르면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나란히 숨져있었고 목욕탕안에는 연탄화덕이 놓여있었다는것. 【聯】

光州교도소 收監 朴寬賢피고인숨져

【光州】光州지법에서 지난 9월27일 소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던 朴寬賢피고인(30)이 12일새벽2시10분께 전남대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朴피고인은 지난 4월9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지난10일 상오10시께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호소,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이날하오 5시30분께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를받아왔다.

동네野球하다 國校生 숨져 시비

【居昌】11일하오5시30분께 경북聞慶郡聞慶邑 문경국교운동장에서 야구놀이를 하던 동교 4학년6반 高文哲군(11)이 같은학년 김모군(11)에게 발길에차인뒤 실신했다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이날하오3시30분께 수업을 마치고 친구6명과함께 학교운동장에서 편을나누어 야구놀이를하다가 高군이 李모군과 시비하는것을 말리려고 高군의 엉덩이를 발로찼는데 高군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는것이다. 【聯】

주간女性
구독신청 533-2361

金堤에 水利박물관
東津農組, 내년개관

【裡里】전북 金堤에있는 東津농지개량조합은 한국농경사회의 발상지인 이일대 선조들의 농경생활을 한눈에볼수있는 수리(水利)박물관을 내년1월 개관하기로했다.

東津農組는 기류·고서화등의 유물과 고문헌·사진등을 수집, 조합의 서쪽편건물 1백여평에 수리박물관을세워 내년 1월 개관할계획이라는것. 【聯】

重傷者1명 또숨져
瑞草洞 地下鐵사고

지난8일 서울江南區瑞草洞 지하철공사장 암반붕괴사고로 중상을입고 高麗大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근로자 조장 許榮錫씨(42·인천北區富平洞760)가 10일상오10시숨져 사망자는 모두5명으로 늘어났다.

五十川에 연어回歸
예년보다 1週먼저

【三陟】베링해등 북양에서 어미로성장한 연어떼가 예년보다 1주일가량앞당겨 산란장인 강원도 三陟郡五十川등 동해안 하천으로되돌아와 연안에설치한정치망과채란장의 포획망등에잡히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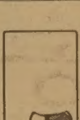
12일 국내최대규모의 연어인공부화장인 강원도 三陟郡近德面소재 강원도립三陟연어양어장 관계자에따르면 지난달24일 三陟郡 五十川하류의 채란용연어포획장에서 무게3.5㎏, 길이70㎝의 3년생 수연어 2마리가 처음잡힌후 지난5일까지 암연어1마리와 수연어5마리등 모두 6마리가 포획됐고 襄陽郡南大川 포획장에서도 지난3일 수연어2마리가 잡힌것을 비롯, 6일까지 6마리가 포획돼 2개하천에서 모두12마리가 선을 보였다는것이다.

모천회귀성인 어사는 三陟연어양어장에서 인공부화돼 겨울동안 10㎝내외로 길러진후 4월초순께 하천하류에방류돼 베링해등 북양으로까지 3~4년간 성장한후 산란장을 찾아 다시 모천인 五十川과 南大川으로 되돌아오고있는 것이다. 【聯】

5行뉴스

◆柳寬順열사 追慕祭엄수 【天安】柳寬順열사 제62주기 추모제가 12일상오10시충남天原郡並川面塔院里 柳寬順열사추모각에서 韓淸洙충남부지사·유족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엄수되었다. 【聯】

불나비
서울 消防본부 指令室長 黃嬚씨
"映畵館서 벨소리에도 벌떡"



서울시 소방본부지령실장 黃嬚소방령(53·사진)은 극장에서 영화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에도 무의식중에 벌떡일어선다. 불과 가까이해야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그의 벨소리에 대한 반응은 더욱 빨라지고 날카로와졌다. 전화로 이어지는 화재상황을 신고받고 처리하는 119화재신고의 컨트롤타워인 지령실장이란 직책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현재 서울시내 119전화는 모두 2백11회선, 일단 관할소방서로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黃씨가 관장하는 지령실요원앞에 있는 6대의 전화기와4개채널의무전기로「불길」이 번진다. 이때부터 지령실은 지시와 보고로 달아오른다. 하루에도 이같은 사태가 5~6차례 계속되곤한다.

모두가 숙달돼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선진외국에 비해 시설이 뒤진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이다. 선진국 지령실은 50~60명의 요원과 완벽한 컴퓨터시설이 돼있을뿐아니라 화재신고도 지령실에서 접수하고 그즉시 소방차의 출동대수·진화예상시간·진입로사정·화재건물의 구조등의 모든자료가 컴퓨터화면에 나타난다는 설명. 이때문에 선진외국은 상황판단이나 상부보고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부러움이 뒤따른다.

黃씨가 불과 씨름을 시작한지도 올해로 만21년이됐다. 지난61년그 좋다던 경무대경비담당 헌병장교를 그만두고 소방사란 말단소방요원으로 들어갔다. 소방사가 되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기까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을 귀전으로 흘리며 불길잡는데 젊음을 바쳤다.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겼다. 68년11월 남대문시장화재때는 4층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바람에 그밑에 깔렸다. 8시간만에 구출돼 유명인사가되기도 했으나 6개월간이나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80년11월 金浦공항 KAL機 화재사고때는 양쪽날개에 4백드럼분의연료가 들어있어 폭발위험이 있었으나 불길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야했다. 이처럼 불만보면「불나비」처럼 달려드는 그를보고 아내는「불에 미친사람」이라고 한다며 웃는다.

『불조심은 소방요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모두 불조심 합시다』 【朴榮基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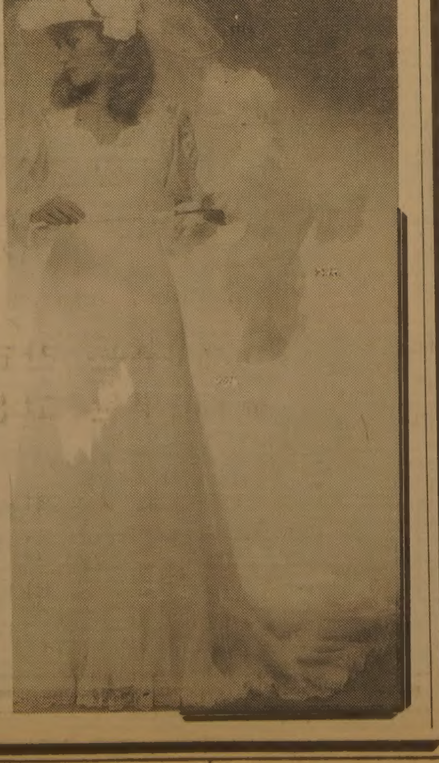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오프닝리셉션
10월16일(금)
오후 6시

하늘 높푸르고, 단풍의 낭만이 가득한 성숙의 계절, 여러분을 모시고 하룻밤 즐거운 한때를보내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뜻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아·원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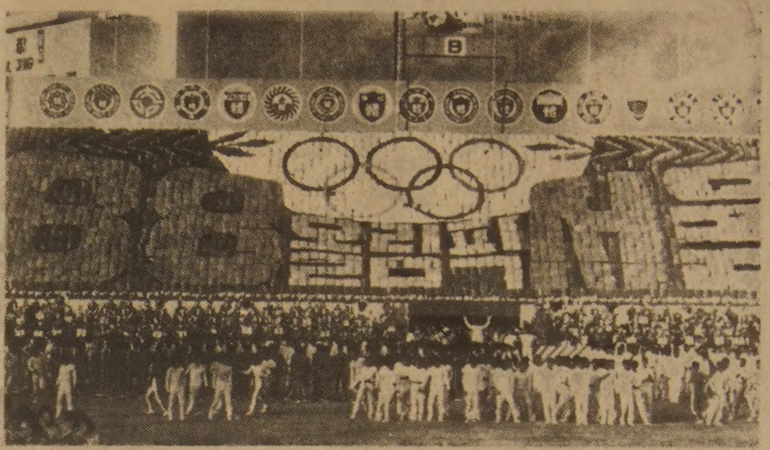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내일開幕「질서體典」계기

경기장非理 뿌리뽑는다



◇63회 馬山 전국 체육대회를 계기로 그라운드의 폭력과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지난해 전국체전 개회식때의 한장면。

각종 不正·폭력·過熱경쟁등

任員·선수·審判 강력히 制裁

제63회전국체육대회 경남'82

14일 馬山을비롯한 晉州·鎭海·昌原등 4개도시에서개최되는 제63회 전국체전은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는대회」란는데 큰 뜻이 있다。63회를맞은 전국체전과 11회의 연륜을 쌓은 소년체전은 전국 시도선수단들의 「대화의 광장」이었고 한국스포츠를 짊어질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산실 구실을 해왔다。전국체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부조리와 폭력사고, 과열경쟁, 비교육적 문제점이 잠재해있다고 仁川教育大 文東奎씨가 연구논문(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운영개선에관한 연구)에서 지적하고있다.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폐습을 근절하기위해 馬山체전을 「질서체전」 완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원과 심판·선수들의 부정행위, 질서파괴행위등을 엄격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과거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무자격선수가 출전하거나 임원·선수및 응원단의 불미스런 행위, 참가신청을 한 개인선수및 팀체가 이유없이 경기에 불참하거나 경기도중 기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체전때마다 부정선수 파문이 일고, 경기장폭력이 발생하는것은 시도간의 치열한 득점경쟁이 빚어낸 후유증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부정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지능화되어 문제를 빚어왔다.

文東奎씨가 중앙경기단체임원, 시도지부 임원, 각급학교장, 체육실무자, 체육교사, 교육위원회 관계자등 각급체육계인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체 부정 가운데 선수의 부정이 41.2%, 행정상의 부정 34.2%, 심판의 부정 14.6%, 기타 부정이 10%로 나타났다. 선수와 행정상의 부정이 압도적인데 이같은사례는 선수의 부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부정의 방법을보면 주민등록과 호적위조, 심판의 부당성, 사진및 사람 바꿔치기, 유급생, 연령초과자, 이중등록, 동명이인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위조가 48.5%로 가장많았고 호적위조 14.1%, 심판의 부정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은 담당계원이 직접 기록해서 발급하는까닭에 거주일정(日程)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기재사항일부를 생략하는 사례가있어 이와같은 부정 방법이 간혹했던것으로 보인다.

사람 바꿔치기는 사람자체가 바뀌어지는것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초본에 붙어있는 사진을 현재 붙어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출전하는것. 사람 바꿔치기는 경기전 제출한명단과 실제 사람이 다른 경우를 뜻하는것으로 전에 릴레이스에서 레이스도중에 나 골인 가까운 지점서 감찰의 눈을 피해 사람을 바꿔치는 사례도 있었다.

유급생 출전은 전국체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소년체전서는 심심치않게 말썽이 되고 있다.

공동우승제로 인해 일부종목 결승전에서 상호합의 끝에 일부게임이나 타임아웃경기를 자행하는 경우도있었으나 테니스의 경우 타이·브레이크 제도, 축구는 승부킥제도를 적용하여 이같은 사례가 시정될수 있었다. 그러나 승부를 가리기 힘든 종목에서 담합또는 부정이 이루어질수 있다.

다음은 과거 실제로 있었던 부정방법의 사례다. 모경기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대회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사전에 대회본부의 담당자와 협상이 이루어져 본부석의 추첨 담당자는 추첨용지 한장에는 勝, 또다른 한장에는 敗로 기재하여 추천준비를 해야 한는데도 두장모두 敗로 기재하여 봉투에 넣었다. 주심은 토스끝에 추첨용지를 날려 주장으로하여금 한장의 용지를 주어 개봉하게 되었다. 사전에 협상이 이루어진쪽의 주장은 추첨용지를 개봉하자마자 敗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이겼다고 환성을지르며 자기팀쪽으로 달려가면 관중들도 추첨에서 이긴것으로인정하게되는것이다.

전국체전서부정선수로확인되었을 경우 소속시도는그해당종목을 차기대회에 출전시킬수 없게되어있는데 전혀 이행되고 있지않다는 반응이 82.4%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체전서는 이같은 지난날의 비리를 뿌리뽑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좌표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閔炳宅기자】

◇부정의 방법

유 형	빈도	백분율
주민등록 위조	79	48·5%
호적위조	52	14·1
심판의 부당성	38	10·3
사진및사람바꿔치기	24	6·5
유급생	22	6·0
연령초과자	21	5·7
이중등록	16	4·3
동명이인	9	2·4
기 타	8	2·2
계	369	100·0

(文東奎씨조사)

◇부정에 대한 인식도

반 응	빈도	백분율
있을수없는심각한일	196	53·1%
흔히 있을수 있는일	74	20·0
간혹있을수 있는 일	69	18·7
심각한일이 아니다	30	8·1
계	369	99·9

◇부정행위의 실태

유 형	빈도	백분율
선수 부정	152	41·2%
행정상 부정	126	34·2
심판의 부정	55	14·6
기타 부정	37	10·0
계	369	100·0

역대體典不正수법

주민등록·호적 僞造
심판의 不當性 개입
사진·사람 바꿔치기
유급생·연령 超過者
二重등록 選手 출전
同名異人 대리 참가

<仁川敎大文東奎씨조사>

한국、難敵캐나다 셧아웃

세계男子배구 2勝3敗로 5~8위戰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聯合】한국은 12일상오(한국시간) 이곳에서벌어진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W조최종전에서 난적 캐나다를 3-0으로완파, 캐나다와 동률 2승3패를 기록했으나세트득실차로 앞서 W조4위를차지, 5~8위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로사리오로 장소를 옮겨 X조 3위 불가리아와함께5~8위전첫경기를 가지며 이경기서 이길경우 W조3위 中共-X조4위폴란드승자와 5위 결정전을 갖게된다。불가리아에 패할경우에는 中共-폴란드전 패자와 7·8위 결정전서 맞붙게된다.

한편 이날 日本과 아르헨티나는 西獨、中共을 각각 3-0으로격파, 함께 4승1패를 기록했으나 세트득실차로 日本이 W조1위, 아르헨티나가 2위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X조서는 5전전승의蘇聯이 1위, 3승2패의 브라질이 2위로 각각 올랐다.

불가리아, 폴란드, 쿠바는 2승3패로 3팀이 동률을 이뤘으나 세트득실차로 3·4·5위가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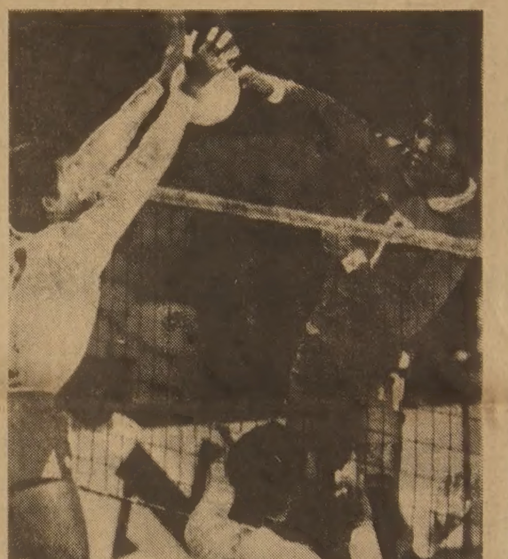
◇준결승리그최종일전적

▲W조
한 국 3 (15-3 15-8 17-15) 0 캐나다
아르헨티나 3-0 중 공
일 본 3-0 동 독

▲W조순위=①일본4승1패(이상 세트득실차) ②아르헨티나4승1패 ③중공 3승2패 ④한국 2승3패 ⑤캐나다 2승3패(이상 세트득실차) ⑥동독 5패

▲X조
소 련 3-0 브라질
쿠 바 3-2 불가리아
폴란드 3-0 체 코

▲X조 순위=①소련 5승 ②브라질 3승2패 ③불가리아 2승3패 ④폴란드 2승3패 ⑤쿠바 2승3패(이상 세트득실차) ⑥체코 1승4패



◇세계배구선수권대회 對日本전서 한국의 장신 李鍾敬(右)이 강타를 날리고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11日AP電送=聯合】

亞洲J농구 결승리그 한국팀對陣

여자 오늘 對比戰 남자는 내일 日과

【마닐라=李基洪특파원】제7회 아시아 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 결승리그에 오른 한국남녀팀 대진일정이 12일확정되었다。여자팀은 13일 필리핀、15일 日本、17일 中共과 대전하며 남자팀은 14일 日本、15일 中共、16일 말레이지아와 대결한다.

◇한국팀결승리그일정
▲13일=여자對필리핀(하오5시) ▲14일=남자對日本(하오6시45분) ▲15일=여자對日本(하오5시) 남자對中共(하오8시30분) ▲16일=남자對말레이지아(하오8시30분) ▲17일=여자對中共(하오6시45분)

美아틀랜타·브레이브스팀 來韓

국내프로와 7次戰

오는 16일부터

美國프로야구 아틀랜타·브레이브스팀산하의 마이너·리그 혼성팀이 12일 내한, 16일부터 국내프로팀및 프로선발팀과 7차례의 친선경기를갖는다.

플로리다이언즈팀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너·리그 혼성팀은 싱글A서부터 트리플A까지의 4개클럽선수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아틀랜타·브레이브스는 5개의 마이너·리그팀을 거느리고있어 매년 이팀들로부터 소수의 우수선수를 메이저·리그 선수로 발탁하고있다.

이번 방한한 팀은 마이너·리그 트리플A팀 리치먼드에서 4명, 더블 A팀사반나에서 12명, 싱글A팀 앤더슨과 더헴에서 7명이선발되었다.

감독은 리치먼드 매니저인 에디·하스。

단장격으로 팀을인솔한 홈런왕 행크·아론은 『급히 다른 23명이 한팀으로 선발되어 원정하기는 처음 이며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른다。성장중인 선수들에게 새로창설된 한국 프로야구를 보여주기위해 발탁했다』고 말했다.

◇경기일정
▲16일6시반=OB(잠실)
▲17일2시=MBC(잠실)
▲20일6시=三星(대구)
▲21일6시=三星(대구)
▲23일2시=올스타(잠실)
▲24일2시=올스타(잠실)
▲27일2시=三星(잠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01

英축구에도 '검은旋風'

西獨과의 친선戰 代表팀 22명중 黑人선수6명

동물적 彈力으로 대담한플레이 전개

白人보다 승리에의 執念강해 효과적

영국축구에도 「검은혁명」이 일고 있다。스페인 월드컵대회와 지난달의 유럽선수권대회등서 잇단 출전으로 사기가 꺾였던 잉글랜드대표팀에 흑인선수들이 대거 기용됐다.

보비·롭슨 대표팀 감독은 13일 서독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는22명의 대표선수명단에 흑인선수 6명을 발탁, 팀의 면모를 일신했다.

롭슨감독은 이번 시즌 각팀에서 팬들을 열광시켰던 흑인선수들의 묘기에 매혹된 것이 틀림없다。흑인선수들의 동물적 탄력과 대담한 플레이가 잉글랜드축구팀을 잡에서 깨게하고, 86년 월드컵대회서 왕관을 노릴수 있게 될것이라고 롭슨은 믿고있는지 모른다.

물론영국축구의 흑색혁명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흑인선수들의 활약은 서서히 돋보였으며 이번시즌 그들의 기량이 꽃을 피운 것이다。롭슨은 흑인선수들을 기용한후 『피부색을 떠나 그들의 선수로서의 재능을 평가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텐햄·핫스퍼의 흑인선수 가드·크룩스는 『흑인은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한다. 백인선수이상으로 돋보이고 싶어하는것이 흑인들의 심리』라고 지적한다.

지금 국가대표에는 흑인 제리·마부트가 와있다。마부트는 1부리그의 몇게임을 치른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그는 당뇨병환자로서 수년전 축구선수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한 의지의 선수.

지금 흑인선수들이 일으키고 있는 열기는 마부트의 이런 초인적인 업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중 비브·앤더슨과 사이릴·레지스는 이미 영국축구계서 낯익은 이름。앤더슨은 3년전 흑인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표로선발되었으나 아직 주전멤버는 되지 못했으며 레지스 역시 시니어대표팀서 활약했다.

나머지 4명은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자메이카태생인 루더·블리세트와 존·바네스는 와트포드의 콤비 스트라이커로서 시즌 첫주부터 1부리그서 활약했다.

블리세트는 79년부터 21세이하 대표팀에서 뛰었고 18세의 바네스는 지난달 21세이하 대표팀에 레프트·윙으로 기용되었다.

스토크시티팀의 윙 마크·챔버레인(19)도 갑자기 유명해진선수。챔버레인은 1부리그 8게임서 보인묘기로 롭슨의 눈에 띄어 전격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또 23세의 럭키·힐은던마크의 유럽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흑인대표선수들의 출현은 영국스포츠계에 충격이 아닐수없다. 【런던(路透)=聯合】

五輪硏究센터 開幕 로잔서 資料등전시

【제네바=聯合】올림픽의 역사와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올림픽연구센터』가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회장과 IOC집행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스위스의 로잔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된 올림픽연구센터에는 1896년 아테네에서 거행된 1회 올림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올림픽관계 자료와 정보가 소장, 전시되는데 일반에게 공개된다.

한국체육대 올림픽대비 조정등 6개팀新設

한국체육대는 오는 86년제10회 아시안 게임과 88년제24회 올림픽에 대비, 근대5종, 핸드볼(여), 조정(남), 하키(여), 테니스(남녀), 탁구(남녀)등 6개종목의 팀을 83년부터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체육대는 현재 육상, 수영, 궁도, 체조, 사이클, 빙상, 역도, 사격, 레슬링, 복싱, 유도, 태권도, 펜싱, 배드민턴등 14개 종목을 육성하며 ...

아시아게임 남자 농구代表팀 李文圭 辛善宇선수로 交替

대한농구협회는 12일 印度아시안 게임출전 남자대표선수가운데 무릎부상을당한 李文圭(현대)를 빼고 辛善宇(현대)로 교체했다.

◇辛善宇

加五輪 조직위장 李體育예방 환담

李源京체육부장관은 12일 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프랭크·킹위원장의 예방을받고 88년올림픽준비등 의견을 교환했다。킹위원장은 濠洲 브리스베인의 英연방체육대회 참관후 서울을방문, 韓·加의 올림픽준비를위한 체육관계정보교환을 약속하고 국내주요스포츠시설을 시찰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39>

안개속의 집 ⑥

『출세감각?』

기욱이 놀란 나머지 아둔한 얼굴이 됐다.

『그래요。그게 없으면 아무리 유능해봤자 아예요。무능해도 그것만 적당히 발달하면 얼마든지 출세할수있게 돼있다는 현대의 상식이에요。이제라도 늦지않았어요。정치적으로 놀아보세요。네?』

수지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기욱은 징그러운 털벌레가 닿은 것처럼 지저리를 쳤다。

『여봐, 우리 집안을 미친 정치바람이 휩쓸고 지나간지도 어언 십년이 가까와 와。일선에서 남치던 형수님까지도 이젠 어지간히 마음을 잡고 평범한 살림꾼이 된 마당에 당신 미쳤어?』

실상 수지는 기욱과 약혼할 무렵부터 시집의 정치바람을 탄 셈이었다.

그 무렵 기욱의 아버지 남현진씨가 적지않은 사재를 털어 고향땅에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기증한 것이 그 바람의 시작이었다。남현진씨는 자기가 못이룬 야망을 맏아들 기동이에게 승계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그런 거액을 아끼지않았던 것이다.

그의 야망은 국회의원이 돼보는 거였고 그래서 그는 만년여당원노릇에 적지않은 돈을 대가며 당내감투를 이것 저것 써보았지만 끝내 한번도 공천은 못받아봤다.

그는 어느 날 문득 현저해진 자신의 노쇠현상과 함께 인력과 경륜의 못미침과 인덕과 기반 없음을 통감하기에 이르렀다。그래서 장가르치고 연부여강한 맏아들을 위해 자신은 인덕과 기반이 되기로 마음을 돌려 먹었고 기동도 거기맞춰 잘 움직여 주었다.

기동의 비극은 그의 경륜과 야망을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이 선량의 신분만 맛보았다는데 있었지만 남현진씨의 비극은 정신없이 돌이민 그의 전재산을 회수할 겨를이 없었다는데 있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극이 훨씬 심각했다。충격으로 남현진씨는 건강이 나빠졌고, 망령까지 부려 어떤 아들에서도 달가와하지 않는 노인신세가 되어 초라하게 살다가 죽어갔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형이 죽이 잘 맞아 돌아가는 일에 냉소적이었던 기욱은 형여자기마저 다칠세라 모르는척 몸을 사리는 걸로 일관했었다。그러나 일이 잘못되어 당한 피해는 남씨가의 형제들이 서로 공평했다.

죽는 날까지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려면 절대로 돈 권리를 놓으면 안된단 생각이 투철했던 아버지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 한채씩 사준 거 외엔 재산을 분배해 줄 척도 안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로 하려 들었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움켜쥔 돈 권리를 아버지는 맏아들의 정계 데뷔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아버지의 늙은막의 엉뚱한 야망은 자식을 통해 화려하게 꽃필것처럼 보였다.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 · 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개업인사
한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불루어상가
(한국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OPEN하여 한인교포여러
분들을 성심 성의껏 봉사
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한인
여사원이 수고하고 있읍니다.
RALPH M. LEVINE B.A.
변호사 (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 : 533-8539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8900
(R) (416)633-7892
채 준 성
(David Cha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7·3조치 基本방향 不變"

國會본회의、어제 經濟문제 對政府질문

"通貨增發없이 國債소화" 답변

"農政不信대책 시급하다" 질문

◇民意지켜보는 村老 「民意의 전당」을 지켜보는 방청석의 民意。시골에서 올라온 村老등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對정부질문이 계속 되었다.【朴泰弘기자찍음】

국회본회의는 11일하오 經濟문제에대한 질문을 마치고 12일부터 사회분야에대한 對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李載雨 安甲濬 (이상 民正) 池楨道의원 (民韓)은 최근의 稅務공세강화와 은행 民營化、中東건설진출、農業 정책등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金竣成부총리는 답변에서 『예산보전을 위해 내년도에 발행하는 國債의 利率을 公金利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고 전국의 金融窓口를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화 할수있는 제도를 강구중에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의 國公債소화능력으로 봐아 내년도에도 통화의 增發없이국채는 소화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발행될 5천5백억원의 국채는 연중 내내 月別처리방침을 모색하고있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7·3조치의 기본방향은 不變이며 단지 衝擊度등을 고려、과거에 형성된 재산을 보호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農産品 가격의 適正線유지를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민과도시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2重穀價制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政府米의 放出가격이 市場가격에 접근하도록 단계적인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金부총리는 換率문제에 관해 『한국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9월말현재 6%가 인상됐다』고 밝히고 『우리의 경우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업체의부담이 어느나라보다 커지게되는구조적인 어려움이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金利의 인하와 기업의 생산성향상등으로 환율이 안정되게 운영될 전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金東輝상공장관은 『자동차工業系列社의 통합방침의 修正조치는 현재 자동차업계가 好轉勢를 보이고있어 더이상 후속조치를 고려치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추진확대회의를 위해 무역진흥확대회의를 가능한 활성화해 더자주열릴수있도록하겠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에대한 稅制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徐相喆동자부장관은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는 농촌도정공장의 기본료가 과중하기때문에 앞으로 도정공장의 非가동기간을 算定하여 기본료를 줄이는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金宗鎬건설장관은 『도시계획지로 지정된후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私有權행사가 제한되어온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年次的으로 이에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한편 假건축물신축을 가능한 허가하고 稅制면에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李載雨의원은 中東의 건설진출에 대해 지역의 限界性과 치열한 국제경쟁 진출업체의 취약성등 여러가지 惡조건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추궁하고 ▲예산節減 ▲장기적인 中小기업育成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수정 ▲주택정책 ▲방위산업제품의 수출문제등에 관해 물었다.

그는 또 『최근 稅收감소에 대비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는등 기업에대한 稅務공세는 소생하려는기업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있다』면서 신중히할것을 촉구했다.

池楨道의원은 『문어발식으로기업을확장해온 財閥의 점진적인 해체가필요하다』면서 『기업을 전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지양、二重穀價制실시등을촉구하고 우리경제의 병폐는경제관료들의 獨善과 일관성없는 無節制에도 그원인이 있다고 비난했다.

安甲濬의원은 『농민은 農政을 믿으려하지않고 있으며 이러한 農政에대한 不信이정부不信의 근원이 되고있다』면서 農政의 일대革新을 촉구하고 ▲農地稅 인하 ▲영세농어민자녀교육비 減免 ▲농축산물수입과 가격안정 ▲양곡관리기금운용 ▲농어촌 전기요금인하 ▲올秋穀收買價대폭인상 ▲高米價정책실시 여부등을 따졌다.

所得稅 최고稅率 上向조정

民正추진 法人稅도 原案보다 5%더

民正黨은 5천5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稅收결함을 보완하고 소득계층간의租稅형평을 기하기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稅法개정안중 法人稅와 所得稅의최고稅率을 국회심의과정에서 上向조정할 방침이다.

民正黨의 이같은 방침은계속되는 국내외경기침체로 83년뿐아니라 그이후의 會計年度까지도 赤字예산이 계속될 우려가있어 효율적인 稅收방안을 현행稅法내에서 검토、건전재정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따라 취해진 것이다.

權翊鉉사무총장은 11일『내년예산이 5천5백억원의 赤字예산이며 國債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도 정부의 稅制개혁안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를 전제로하고있어 稅收결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民正黨은 앞으로 국회재무위의 稅法심의과정을통해 稅率조정을 할수도있다』고 말했다.

民正黨이 검토중인 소득세법 修正내용은 ▲50%로 돼있는 정부의 소득세 최고稅率을 현행대로60%와50%사이로 조정하고 ▲세율 累進단계도 현행 17단계에서 15~16단계로만 줄이며 ▲少額所得主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6천만원으로 上向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의 稅法심의과정을통해 稅率조정을 할수도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는 ▲5천만원이하20%(現行22%) ▲5천만원초과기업27%(〃33%) ▲非公開大기업25%(〃38%)로 돼있는정부안이 지나친 稅率인하로 기업에만 혜택을주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5천만원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정도 더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美、폴란드에 經濟보복

노조不法化에… 무역最惠國대우 철회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 AP UPI=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9일 자유노조를 불법화한 폴란드의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폴란드가 지난22년동안 누려온 무역最惠國대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즐기고 있던 산타바바라에서 행한 전국라디오방송연설을 통해 미국은 폴란드당국의 자유노조불법화조치를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西方동맹국들과 對폴란드추가 제재조치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韓·버머 外相회의 資源技術협력 논의

李範錫외무장관과 訪韓중인 우칫라잉버마외상은 11일 하오외무부에서 韓·버마외상회담을갖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했다.

咸비서실장 歸國

咸秉春대통령비서실장은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9일하오 대한항공편으로귀국했다.

陳의원에 解明요구 "獨立유공자"協會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趙擎韓)는 11일 民正黨의 陳懿鍾의원이 지난5일 국회본회의에서 『과거의 反日이나 抗日운동과같은 감정적 발산은…』이라고 발언한데대해 성명을 발표、陳의원의 발언중 『과거』가 어느때를 지칭하는것인지 밝혀줄것을 요구했다.

이성명은 『陳의원이 말하는 「과거」는 日帝壓政시대를 말하는지』라고 추궁하고 『그렇다면 安重根 尹奉吉의사등을 비롯한 헤아릴수 없는 義兵이나 獨立운동사들의 사투가 일시적인 감정발산이었겠는가』고 해명을 요구했다.

社會漫評

惨事가 나면 구경이나 즐겨하고 있읍니다…

地平線

정원의 양식에는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가꾸거나 연못을 이루는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여 구성하는 기하학식 정원과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풍경식정원의 두종류가 있다. 그것을 꾸미는데 있어서 우리韓國을 비롯한 중국 일본등 동양3국의 양식은 말할나위도없이 풍경식을 흔히 따른다.▼우리나라의 정원으로서 가장 오랜 기록은 백제의 진사왕 7년(서기391년)에 『연못을 파고 造山을 모으고 신기한 짐승과 아름다운 화초를 길렀다』는 것이다. 이에 뒤이어 신라에서는 문무왕14년(서기674년)에 지금도 경주에 남아있는 안압지를 비롯한 궁원의 틀을 가꾸었다는 기록이 보인다.▼또 경주에 남아있는 정원유구로서 저버릴수 없는 것이 포석정의 曲水宴을베풀었던 조물로서 이것만으로도 우아하고 멋진 신라궁정문화의 자취를 짐작할수가있다。그런데 정원을 가꾸는 멋이 일반에게까지 보급하게된것은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의 일이다.▼그시대의 정원으로서 가장 이름이 높고 오늘날까지 비교적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옛모습을 찾아볼수 있는것이 文殊院이다. 강원도 춘성군북산면 청평산 기슭에 자리잡고 선을 닦던 터전인 선원으로서 고려초기에 조성되었으며 특히 당대의 큰선비 李資玄(1061~1125)의 안목이 깃들여진것이다.▼지금까지는 문수원에 세워진 이른바 문수원중수비가 고려시대의 귀중한금석으로 관계자들의 주목을받았을 뿐、정원자체는 소외되어 오던것이 「한국정원문화연구회」가 81년8월부터 지난5월까지 9회에걸쳐 발굴조사를 한결과 중국이나 일본보다 근2백년이 앞선 독자적인 기법을 구사해서 세계정원문화사상의 자랑거리로 밝혀졌다는 것이다.▼특히 老子의 無爲自然說을 엿볼수 있듯 돌을 겹겹이 쌓아올린 疊石技法을 비롯하여 편저에서 샤마루에 이르는 약4만5천㎡의 넓이에 알맞게 앉혀진 당·헌·암·정자나 연못、동굴석실、수구시 정원석계、좌선대등이 둘레의 자연경관과 이루는 조화는 절묘했다는 보고다.▼우리나라에는 이렇듯 중요한 정원문화의 전통이 있으면서도 별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드물다。아직도 궁원·사찰·향교 또는 여염집등에 옛대로의 빼어난 정원이 남아 있기는 하나 재개발을 빙자하여 마구 파괴되거나 변형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통적 정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일반의 이해가 절실해 보인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1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朝陽그룹 (朴南奎회장외 系列社 任職員·海上職員일동) 3千4百98萬원

◇朴南奎씨

◇金魯彥씨

◇康相台씨

- 汎和綜合建設 金魯彥대표 外 1백72만원
- 韓田油化工業 康相台사장 外 1백30만원
- 水原칸트리俱樂部임직원일동 96만원
- 南楊州郡和道面 맷돌회 尹東旭씨 외 77만원
- 百世纖維企業社 全龜淵대표 外 임직원 75만원
- 金星電業社 宋春光대표 外 임직원 67만원
- 최현숙씨 50만원
- 陰城매괴女中高 47만원
- 廣興市場 鄭順龍씨外 32만원
- 廣興市場商人일동 12만원
- 在獨교포선수단 30만원
- 梨花親睦會회원 30만원
- 普門寺佛信徒일동 26만원
- 在美동포 趙鎭國씨外 25만원
- 東友라이온즈클럽 25만원
- 서울종우早期蹴球 22만원
- 반석敎會 郭永璜씨 20만원
- 서울구로國校 19만원
- 崇仁1洞1통住民 14만원
- 韓國樂器工業組合 12만원
- 七七親睦會회원 10만원
- 富川市 李興奎씨 10만원
- 鍾路3·4街洞1통 10만원

▲朝陽商船(株) 대표이사사장 朴南奎씨외 任職員·海上職員일동＝1천3백31만1천5백37원 ▲第一生命保(株) 대표이사사장 朴壽基씨외 任職員일동＝1천4백63만5천3백47원 ▲三益船舶대표이사사장 朴載益씨외 任職員일동＝3백29만7백8원 ▲(株)南北水産대표이사 사장 朴載益씨외任職員·海上職員일동＝2백65만3천8백78원 ▲朝陽에이젠시(株) 대표이사 사장 朴孝源씨외任職員일동＝1백9만2천원 ▲汎和綜合建設(株) 대표이사 金魯彥씨外 任職員一同＝1백72만1천9백50원 ▲韓田油化工業(株) 사장 康相台씨外 임직원一同＝1백30만9천40원 ▲(株)水原컨트리 俱樂部임직원및從業員一同＝96만2천80원

◇南楊州맷돌회代表。

◇在獨선수단대표들。

◇동우회 라이온스클럽 趙鎭國씨(左)와 李瀅源씨。

▲南楊州郡和道面맷돌회 (회장 尹東旭) 一同＝77만2천5백원 ▲百世纖維企業社 대표 全龜淵씨외임직원一同＝75만1천4백원 ▲金星電業社 代表宋春光씨外 직원一同＝67만3천원 ▲최현숙씨＝50만원 ▲陰城郡甘谷面 매괴여자중·상업고등학교 (교장朴敬子) 교직원및 학생 (대표 김정설·김은미·인숙교사 安昌元) 一同 (2차분)＝47만2천4백원【長湖院지국접수】 ▲(株)廣興市場 대표이사 鄭順龍씨＝30만원 同직원一同＝2만원 ▲(株)廣興市場商人一同＝12만2천원【의정부지국접수】

▲在獨僑胞선수단 (제63회 전국체전) (단장許宗述·부단장 석호세·김형남·홍기득 강성열·총무 서봉두) 一同＝30만원 ▲梨花親睦會회원一同＝30만원 ▲大韓佛敎普門宗 普門寺信徒一同＝26만원 ▲在美앵커리지코리안·라이온스클럽 회장趙鎭國씨外 회원一同＝25만원 ▲東友라이온스클럽회장 李瀅源씨外 회원一同＝25만원 ▲서울종우조기축구회一同＝22만5천원 ▲中區반석감리교회담임목사 郭永璜씨＝20만원

▲서울구로국교 (교장 홍재필) 학생一同 (3차분)＝19만1천6백85원 ▲鍾路區崇仁1洞1통 주민一同＝14만2천5백원 ▲韓國樂器工業協同組合 이사장 白露光씨外임직원一同＝12만원 ▲七七親睦會 (회장 朴鐘奎) 회원一同＝10만원 ▲李興奎씨 (富川市驪谷洞314)＝10만원 ▲鍾路3·4街洞1통 (대표 구명회) 주민一同＝10만2천원 ▲陰城郡甘谷面 友信친목회 회장 李漢錫씨·池鍾旭씨外회원一同＝5만원【長湖院지국접수】 ▲陰城郡甘谷面旺場里 북한산가 슈퍼마킷 대표 李起成씨＝2만원 ▲陰城郡甘谷面旺場里 중앙다방 대표 金貞鎬씨＝1만5천원 ▲慶北金陵郡農所面 정화위원一同＝5만원 ▲宜寧郡富林面立山里老人會 회장 安鎣基씨외회원一同＝3만2천원【신반보급소접수】 ▲東大門區回基洞老人會 (회장 鄭雲鳳·부회장 黃熙哲) 一同＝3만원 ▲冠岳山相澤山岳會회장洪炳奎씨외회원一同＝3만3천원 ▲安養市비산1동 주공아파트2단지 11통주민一同＝2만4천원【安養지국접수】 ▲鍾路區安國洞11통7반주민一同＝5만3천원 ▲南楊州郡부면동내2리3반 반장 金富煥씨外20명＝1만7천3백원【陽內지국접수】 ▲鍾路區社稷洞7통8반주민一同＝1만5천원 ▲中區新堂洞213의49 이태모씨＝8천원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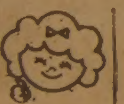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533-2361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인 삼
- 웅 담
- 산 삼
- 우황청심환
- Nut 일체
- 녹 용
- 사 향
- 홍 삼
- 보 약
- 중 풍
- 심장병
- 간장병
- 비만증
- 신경통
- 고혈압
- 부인병
- 양기부족
- 위장병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레이건의 엄포

美의 對폴란드措置 意味

폴란드의 자유노조 불법화에 따른 미국의 對폴란드 最惠國대우철폐 조치는 그조치가 갖는 실질적내용보다는 폴란드자유화를 추구한다는 레이건행정부의 기본입장에 충실한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조치는 폴란드계엄령 10개월후인 1981년 12월23일 폴란드에대해취해졌던 경제제재조치에 이은두번째것이며 폴란드사태에 대한 압력을 폴란드와 소련에 가했던 對蘇파이프라인 기술금수조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이번 제재조치는 경제적제재조치라는 의미에서 비록 그효과나 실현성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라 할지라도 레이건대통령의 말처럼 폴란드에서 일어나고있는, 더 나아가서는 소련의 압력과 지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억압사태를 미국이 보고만 있을수 없다는 결의의표시이기도 하다.

레이건대통령은 요즘 매주말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주요국내문제에대한 그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해왔고 지난 주말인 9일에는 10.1%에 달한 실업률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전날 폴란드에 자유노조불법화 결정이 내려지자 연설내용을 바꿔 對폴란드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란 이미 보도된대로 1960년이래의 관세상의 최혜국대우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것이 폴란드의 對美수출및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어 억압사태의 완화에까지 이르게 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것같다.

폴란드는 미의회의 동의에 따라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중공등 다른 4개공산국가와 함께 미국의 관세 최혜국 대우를 받아왔다.

공산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반드시 의회동의를필요로 한다.

따라서 레이건의 이번제재조치도 의회지도자와 협의를 가지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을것이라고 래리·스피크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밝혔다.

물론 의회측의 제동으로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번 제재가 미국의 의지표명이라는 상징적 의미외에 폴란드, 더나아가서는 소련에 대해 어느정도의 실질적 제재효과를거둘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일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미 폴란드의 對美무역실적은 현재에 와서 현저히 줄어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양측에모두 적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1979년 집계에 의하면 폴란드의 對美수출은 4억2천7백만 달러였으나 작년에는 3억6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고 금년상반기에는 불과 1억달러에그쳤다.

이들에 의하면 무역실적 감소원인은 폴란드 국내문제에도 이유가 있지만 작년12월에 내려진 미국의對폴란드 1차경제 제재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것.

제1차제재조치란 미국의 폴란드에 대한 신규 차관및 수출입은행 차관의 보증에 대한 유보, 민간항공및 어업권의 일부 유보, 고급기술의 이전금지등이 골자로돼있다.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모두 2백6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있는 폴란드가 미국은행에진 빚중 갚지못한 부분에 대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위해 지금까지 2억5천만달러를 대납해온것으로돼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 일부에서는 차제에 폴란드를 채무이행불능국가로 선언, 좀더 큰타격을 가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단계에까지 나갈 것같지는 않고 소련에 대해서도 현재의 파이프라인 기술및수입상의 경제제재조치가 당장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것은 폴란드를 부채를 갚을수있는 상황에 두는것이 여러가지로 미국에 유리하며 對蘇경제제재조치의 확대란 경제제재의 속성이 항상 제재를 가하는 측의 출혈도 감안해야한다는 점과 제재가 확대되려면 미국금융의 對蘇금수가 당연히 이에 포함되어야하기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제재는 미국내 경제에대한영향도 그렇지만 국한적게제가 오히려소련의 폴란드 무력침공등극한 상황을 일으킬것이라는 가능성때문에 힘들것으로 분석된다.

레이건이취한 이번조치의 실질적영향은 어떤것인가.

폴란드 對美수출상품의 반이상이 직물류와 생선 및 햄등으로 되어있고 이번제재에서 현재 미국이부관세수입을 하고있는 햄등농산물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해당품목은 전수출품의 3분의1을 점하고있는 직물류 등공산품이다.

직물류의 경우 현재수입관세율폭은 4·7%~40%이고, 이것이 이번 조치로인해 10~60%로올라 갈것이며 통조림의경우 파운드당 70센트의 관세가77·7센트로 올라가는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미국소비자들의 속성때문에 이정도 인상도 수요에 영향을 줘 경제적 제재조치 구실을 할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질적문제를 떠나 이번 조치가 제구실을 하기에는 미흡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노조의 지유화추구에대한 억압을 이유로 이런 제재조치를 내렸다면 폴란드와 비슷한 사태가벌어지고 있는 루마니아에대해도같은 조치를 내리지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이같은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행정부관리들은 조차 이번조치는 레이건이 얼마나 폴란드사태를 혐오하는가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는가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측은 파이프라인의 경우처럼 유럽의 맹방들이 이에 동조해줄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가지고있지 않는것같다.

또한 이런점에서 유럽에서 거센 반발을 보이고있는 미국의 對蘇파이프라인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후회나 양보도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번조치는 對蘇견제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레이건행정부의 의지를 잘 나타낸 또 하나의 예라고 할수있다.

레이건은 지난9일 연설에서『폴란드에 억압이 가중된다면 다음단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 美대통령이 9일 산타·바바라별장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연설을 통해 폴란드에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 AP特約=聯合】

유럽同調 기대 못걸어

交易量적고 強硬策에도 限界

메아리

素人劇

金聖佑 <編輯委員>

제6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늘로 막을 내린다. 그동안 8개의 극단이 참가하여 8주동안 공연을 했다. 전국에 80여개의 크고 작은 극단이 있으므로 일부 극단의 공연만가지고 우리나라 연극의 발전을 평가할수는 없겠지만, 연극제에 참가한 단체들이 대부분 만만찮은 공연경력을 가진 극단들이어서 새로운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것인데 전반적인 반응들은 대체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서운한 성과다.

우리나라 연극이 쉽게 잘 크지않는 까닭은 많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관객들의 너무 미온적인 반응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번 연극제동안 8개의 연극이 관객들로부터 받은 박수의 양은 통틀어서한 연극에 몰아주어도 결코 많다고는 할수 없을만큼 인색한것이었다. 물론 연극이 미지근한 탓이라고는 하더라도 관객들은 막이 내리고나면 손에 붙은 먼지 털는 기분으로 형식적인 박수를 조금 치고는 일어서버리고했다. 열광이 없었다. 갈채가 없었다. 연극의 終幕은 관객의 오랫동안 끊이지않는 박수소리에 몇번이고 다시 오르고 해야 그 격려에 다름 새 연극의 첫幕에 씩씩하게 올라가는것이다. 극장밖에 있을때는 연극의 3대 구성요소가 작품, 배우, 관객이란것쯤은 뻔히 알면서도 우리 관객들은 극장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연극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만다.

우리연극의 발전을 더디게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흔히 지적되는대로 관객들의 너무빠른 세대교체다. 이번 연극제의 관객들도 거의가 학생들이었다. 일반사회인의 관객이 없다.

연극을 살리기위해 관객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극을 말할때마다 늘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있다.

어릴때 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素人劇을 자주했다.

한번은 한 일본순사가 한일부사의 총에맞아 무대위에 쓰러졌다. 극이 한참 진행되어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고있는데 죽은 일본순사의 시체가 갑자기 몸을뒤채더니 코를 드릉드릉 고는것이아닌가. 관객들은 키득키득 웃었다. 임기응변은 名優의 長技라, 한일부사는『이놈 아직 안죽었구, 한방 더 받아라!』 하면서 발을 탕 구르며 총의방아쇠를 당긴것까지는 名演이었으나, 아차 총소리가 나야말이지. 그때만 해도 무대뒤에서 발동작에 맞추어 화약을 탕쳐서 총소리를 냈던것인데 이대목에 없는 갑작스런 연기에 총소리가 준비되어있을리가 없었던것이다. 관객석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도 폭소가 오래 계속되자 잠들었던 일본순경이 그웃음소리에 놀라 눈을떴다가 영문을짐작하고는 도로 시체가 되는것이었다.

해방후 한동안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素人劇이 성행했다. 조그만 邑이나 面단위로 학교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마을사람들이 배우가 되고 마을사람들이 관객이 된 연극이 상연되는 날은 온통 축제기분이었다. 연극은 가장 原初的인 예술형식인동시에 가장 본능적인 예술행위다. 평소에 예술이란 것과 거리가 멀었던 시골 마을사람들로서는 연극이 예술과 피부를 맞대는 최초의 기회였다. 출연자뿐 아니라 연극의 관객이 된다는것은 그 자체가 한가지 예술행위라 할수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쾌감이 있었다. 그 素人劇이 지금은 깡그리 없어졌다. 영화가 들어와 鄕土民들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기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화속으로는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참여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合一된 호흡이 없다. 또 요즘은 기성극단이 많아 시골 순회공연이 있지않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장소등의 문제로 邑面단위 까지 내려가는 일이 드물고 이 또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구경하는것과는 뜻이 전혀 다르다. 素人劇은 향토문화제같은 傳承과는 달리 창조가 있다. 文化的開眼뿐 아니라 文化的平準化의 첫걸음이라는데도 뜻이있다. 그리고 마을마다의 素人劇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규모로 연극의 관객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국민적 연극운동의 기반이 된다.

해마다 全國素人劇競演大會라도 열어 素人劇의 부활을 장려한다면, 그래서 논매던 갈퉁이가 무대에서선다면, 나라의문화생활은 潤氣가 돌것이고, 연극의관객들은 [illegible] 것이고, 또 연극의관객들은 [illegible]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연극제는 매번 [illegible] 않을것이다.

영국의 시인 윌머트는『연극은 인민의 책이다』라고 말했다.

◇테러설명듣는 伊수상 로마의 유태교목사책임자인 엘리오·토아프(가운데 모자쓴 사람)가 테러분자들의 습격사건이 있은 유태교회의 현장에 들른 조반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右)에게 사건내역을 설명하고있다. 【로마9日AP特約=聯合】

日, 中立等距離외교 배제

"核억제·防衛力 증강"

外務省발표

【東京=聯合】일본외무성은 9일 일본이 서방의 일원으로서 중립적인 等距離외교를 배제할 것과 核억지력의 유효성및 자주적 방위력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보정책견해를 발표했다.

80년에 이어 2번째로 발표된 외무성의 이번 안보정책견해는『일본외교의 기본방침이 모든 나라와 등거리관계를 유지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일본은 서방의 일원으로서 중립적 또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부담해야할 책임과 역할은 충분히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정책견해는 또 방위면에서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자세를탈피, 서방측안전보장전체를생각하는『방위自助노력의 강화』가 긴요하다고 역설하면서 核軍縮문제와 관련,『핵무기전폐론이나 核不使用결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손상시킨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核억지력의유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안보정책견해는 이밖에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요원파견등 자위대원의 해외파견이 필요하다는 자세도 강조하고있다.

80년의첫번째견해와 비슷한 내용의 이번 안보정책견해는 앞으로 美·日관계를 안정시켜 나가기위해 일본의 방위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외무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견해는 일본이 서방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한것이『기본적 가치관이 똑같은 것은 물론 가장 제약이 적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때문』이라고 지적,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으며 또한 全方位외교와 관련,『가치관 이데올로기 체제등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것은 도저히 不가능하다』고 주장했다.

中·蘇 3번째會談

브死亡前 對話통로開設 논의

【北京UPI=聯合】중공과 소련은 9일 北京에서 세번째로 부외상급회담을 개최, 양국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으나 회담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北京의 서방외교소식통들은 9일 中共이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이전에 크렘린과의 대화통로를 개설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관측했다.

중공지도자들을 최근 만났던 한 제3세계외교관은 중공이 소련지도층의운명에 지대한 관심을가지고있으며 이때문에 레오니드·일리체프소련부외상의 최근 北京방문에 호의적으로 나왔었다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중공은 소련내의 권력계승문제에 매우 깊은관심을갖고있으며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기이전에 그들의善意를 소련측에 인식시키게되기를 지적했다.

그는 중공이 브레즈네프 사망이후 벌어질 지도층내부의 권력다툼의 와중에서도 크렘린과의 연결을유지하기위해 그의 사망이전에 크렘린과의 대화통로를 열수있게되기를 바라고있다고 풀이했다.

호르스灣 전면封鎖 스웨덴

【베르카해군기지(스웨덴)AP=聯合】스웨덴 정부는 무스코해군기지인근해역에침투한 국적불명의 괴잠수함수색작업을 벌이기 시작한지열흘째인 10일 처음으로 공군헬리콥터2대를 현장에 투입, 수색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호르스灣으로 통하는 모든통로와 항해로를 전면 봉쇄했다.

스웨덴정부가 지난1일 괴잠수함의 잠망경을포착,수색활동을 펴기시작한 이래 공군항공기를 호르스灣에파견,정찰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경우는 처음 일로 한국방성관리는 이 괴잠수함이 사진촬영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061

솔제니친 日서 TV會見

◇訪日중인 솔제니친

"좋은 共産主義 따로없어 西方은 中共에 현혹말라"

소련망명작가 알렉산더·솔제니친은 서방측이 중국공산주의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9월16일부터 비밀리에 일본을 여행중인 솔제니친은 9일밤 방영된 한일본TV와의 회견에서 스즈끼일본수상과 닉슨前美대통령이 중공이 보다 강력해지는것이 세계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한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고『좋은 공산주의와 나쁜 공산주의가 따로 있을수없다』고 강조했다.

솔제니친은 4백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있는 중공이 티베트人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로의 진출을 꾀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공과 소련이 언제든지 우호관계를 회복할수있다고 지적하면서『미국과 일본이 중공을 지원, 강대국으로 만들 경우 결국 어떻게 될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東歐圈국민들이 그들의 소련식정부를 전복시킬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대해『그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될것』이라고 말하고 바웬사가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東歐圈에 굴복하고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브란트전서독수상이나 헨리·키신저전美국무장관과는 달리 바웬사는 맨손으로 탱크에 맞서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므로 노벨평화상은 바웬사에게 주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東京=AP】

海外토픽

人工太陽… 낮이 길어진다

★美서製作 지구궤도에配置

일단의 미국과학자들은 10일 폭이 0.8㎞나 되는 대형 태양빛반사경 여러개를지구궤도상에 배치함으로써 달빛의 56배에 달하는 강한 빛을 얻어낼수 있으며 이 빛으로 밤에도 주요거주지들을밝힐수 있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美항공우주국(NASA) 랭글리연구소에 근무하는 존·캐나디, 존·앨런씨등 과학자들은 이날 발표한 한 과학보고서에서 태양빛 반사경을 궤도상에 배치할 경우 야간에 공급되는 전기를 절약하고 각종범죄를 줄일수 있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옥외활동기회를 늘려주는등의 각종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학자들은 또 이같은 태양빛반사경을 이용하면 저녁과 이른아침시간에 2시간씩 미국의 4~5개대도시를 밝힐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태양빛반사경을 이용하는 것은 식물의 광합성과 야생동물의 습성에 영향을 미치는등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학자들은 이보다도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시간에도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UPI】

"입 다물라" 命令

★西獨수상 閣僚들 團束

헬무트·콜西獨수상은 최근 국내신문들이새연립정부각료들과의 회담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각료들에게 자신이 오는13일 의회에서 정책연설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신문과의 회견을 중지하는등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각료들에 대한 콜수상의함구령은 일부각료들이 기민·자민·기사 3당간의 중도우익연립정부구성협약에 언급되지도 않은 문제를 거론해서 벌써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기때문인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노르베르트·블루엠노동상은 6개월간의 임금동결을 제의, 업계와 노조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본=AP】

◇英王室진노시킨 앤드루戀人

앤드루영국왕자와 섹스영화배우 구·스타크양이 함께 있는 모습. 최근 이들이 가명을 사용하여 카리브해로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감으로써 영국왕실이 진노하는가하면 영국국민들은 충격을 금치못하고있다. 【AP】

레이건支持率 41%로 最惡

輿論, 11월선거때 民主黨에기울어

레이건美대통령의 지지도는 그의 재임중 가장 저조한 41%로 떨어졌으며 오는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미국인들의 57%가 민주당에 투표할것이라고 美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9일 밝혀졌다.

갤럽여론조사소가 뉴스위크誌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1천18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중41%만이 레이건의 대통령직무수행에 만족을 나타낸반면 51%가 불만을 표시, 그의 인기가 대통령취임후 가장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중54%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가계(家計)를 악화시켰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가계가 더 나아졌다고 응답한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뉴욕=UPI】

멕시코鬪牛場 관람석 붕괴

14명 死亡·4백명은 負傷

멕시코시티남부의 한 노천투우경기장에서 9일하오6시30분(한국시간 10일낮12시) 경기장 관람석의 일부가 무너져 투우를 구경하려 몰려었던 관중 14명이 죽고 약 4백명이 부상했다고 국영 TV방송이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날 밀파알타경기장에 투우사 안토니오·로멜린이 헬리콥터편으로도착하자 그의 모습을 보기위해수백명의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멕시코시티=AP】

英心理학자主張

죽은자와 산자간의 의사소통문제를 다루는 초심리학분야의 역사에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사망하더라도 영적으로 생존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줄만한 매우 설득력있는 증거가 있다고 영국의 한 과학자가 주장하고 있다.

런던시립대학 전기·전자공학과의 아더·엘리슨 교수는 최근 心靈研究協會 회장취임 연설을 통해 신비스러운 심령의사소통문제에 언급하면서 무의식 또는 혼수상태에 있는 靈媒를 통해 死者가 전달한 수수께끼의 메시지내용을 해독한다면 인간의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줄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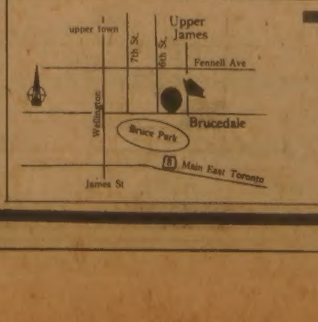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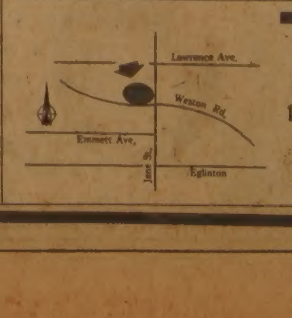
제가 오는10월 15일에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專門大정원 千百명 감축

내년 12萬3百명 모집 電子·관광學科등만 늘려

전문대학의 모집인원이 대폭축소 조정됐다。

문교부는 11일 발표한 83학년도 전국 1백27개 전문대학의 모집인원과 요강에서 모집인원은 82학년도의 12만1천5백39명보다 1천1백91명이 줄어든 12만3백48명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정원축소조정은 전문대의 양적팽창을 더이상억제하고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전문대를 단기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위한 것인데 전문대학제도가 생긴이래 정원을 감축 조정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도표 10면。

문교부는 전문대의 정원을 조정하면서▲정보산업시대에 부응하기위해 정보처리요원을 양성하기위한 전자관련학과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산업에 대비、관광관련학과및 여성의 단기고등교육기회확대를위한 여성교육관련학과 ▲외국어학과 등에 우선적으로 정원을늘리고 반대로 현재 일반대의 인문계에 해당하는 국문학과 역사관계학과 문예창작과 부동산학과등은 폐지하거나 정원을 대폭줄였다。

문교부는 이날 신입생모집요강도 확정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학과별 모집으로2~3지망을 허용하고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은 7대3이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특별전형제도를 두고있는데▲산업계 고교졸업자나 2급기능사자격자가 해당학과에 지원할경우▲16인 이상의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근로자가 야간과정 (모집인원 1만7천7백72명)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각 정원의20~50%범위내에서 우선 입학의혜택을 주기로 했다。

계열별 정원조정내역을 보면 전국에 36개교가있는 공업계의경우 현재의 4만5천2백명에서 유사학과를 통폐합시켜 2천2백40명을 줄여 4만2천9백60명이 됐고、37개교가되는 실업계는 1천3백20명을 늘려 4만3천9백20명이 됐다。

농업(8개교)보건(10개교)계는 변동이없으며 水海洋계(4개교) 간호계(32개교)는 각각40명과10명씩이 줄었다。

大入 학력考査

日語 어렵게 出題

선택몰려 英語는 쉽게

문교부는 11일 대입학력고사에서 외국어선택과목수험자들이 일본어를택하는 지원자가 계속늘어나는 추세를억제하기위해 대입학력고사의 난이도를조정、금년도부터 영어는 쉽게、일본어는 상대적으로 한층어렵게 출제키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점수를따기쉽다는 이유등으로 일본어선호도가 무분별하게 높아지는경향이 뚜렷해져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을 정상화시키기위해 취해진것이다。

입시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어를선택하는 이유는 시험문제를 어렵게내더라도 학습범위가 좁고 따라서 출제범위도 좁아지게되므로 영어보다 득점면에서 이롭기 때문이며、실제로 이같은 현상때문에 심지어 대학의 영문학과 또는 독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일본어를 선택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는것。

현행 교육제도에 따르면 영어의 교육기간이 중1년부터 고3까지 6년간이며 독어、불어、일어등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 3년간인데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는 영어와 제2외국어가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점수를 얻기에는 일어등 제2외국어가 유리하다는 모순을 낳고있다。

문교부는 이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오는 86학년도부터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외국어는 필수 선택으로 결정 공고했었다。

설익은 귤 着色판매

西歸浦 선과장…品質저하 막아야

【西歸浦】西歸浦시내 일부감귤 선과장에서는 요즘 출하기를 맞아 미숙과를 인공으로 착색시켜 팔고있어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11일 상인들에따르면 출하기를앞둔 일부감귤 선과장에서는 덜익은 감귤을 시판하기위해 일본에서도입한 가직객、에틸렌시프등 화학약품을 사용、익은 감귤처럼 착색시키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인공처리된 감귤은 수분이 떨어지고 맛탕맛탕해지는등 변질돼 濟州감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있는데 착색작업중 부주의로 폭발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7일 하오3시에 西歸浦市東烘洞 高성관씨(52)의 선과장에서 착색기가 폭발、작업중이던 인부 4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濟】

선박용油類 빼내

공무원·業者등 8명구속

【釜山】釜山지검특수부는11일 유류회사와짜고 관용선의 선박용 유류 1천2백80드럼(싯가6천4백여만원)을 빼내 시중에판 釜山지방해운항만청 직원 金英洙씨(48·6급·제2청룡호기관장·東區水晶2洞172)와 申相徹씨(50·6급·釜山鎭區堂甘2洞479)등 공무원 3명을 비롯 선박급유회사인 中區中央洞4街 호남행상석유 대표 鄭政夫씨(38·南區大淵洞336)등 8명을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장물운반등 혐의로 구속했다。【鈴】

大學生 3명구속

示威 선동협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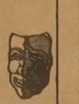
서울永登浦경찰서는 11일 金在燁(17·장로교신학대2년)、趙成浩(21·서울市立大2년)、金炳鎬(20·서울大사학과2년)、吳鎭宇(20·성대사학과2년)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지난 7일 하오9시께 서울永登浦區堂山洞1가141의70 도시산업선교회 회관에서 元豊모방 노조문제 대책위원회(회장 이우정)가 주최하는 노조근로자를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노동가、정의가등을 부르며 원풍 근로자 5명의 부당해고 철회」「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압력중지」등의 구호를외치며 시위를 선동한혐의다。

觀相

서울地下鐵公社 사장 金在明씨

꼿꼿한 어깨로 "걸작"公言에도 事故만



觀相엔 肩相이란 것도 있어서 어깨만보고도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다고 한다。 어깨의 표정은 얼굴보다 더 정직하게 마련이어서 모든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인다。 정면의 얼굴에는 어차피 가식(假飾)이 깃들게 마련이지만 뒤에서보는 어깨는 「꾸밈」을 넣을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지하철公社사장 金在明씨(51·사진)의 肩相을보면 우선 꼿꼿하고 팽팽하다。 무엇이든 쉽사리 용납하지 않으려는 다짐이 서려있어보인다。 그의 어깨가 「이렇게」된것은 무엇보다 그가 31년동안 군인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

육사10기로 6·25에 참전한이후 지난해 소장으로 예편될때까지 그의 어깨는 줄곧 꼿꼿하게 훈련되어 왔을 것이다。

지난8일 3호선 330공구에서 사고가 났을때 그는 발생 3시간30분만인 9일0시 현장에 달려갔다。 맨먼저 한일은 또 사고가 났다고화를낸것이다。

그의 지하철에대한 열의는 대단해서 4월8일의 무악재 사고때는 부하들을 세워놓고 한바탕 「벌」을 주기도 했다。 사고때말고도 그런소문은 심심찮게 들렸으며『못해먹겠다』고 하소연하는 公社사람들을 서울시간부들이 자주달래야 했다는 후문이다。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에서도 마지막 4번째 시체를 발굴하고도 그가 폭발할것이 두려워 직접 보고를 못하고 다른기관간부를통해 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함축성있는 말을 잘하는 재갈을 지녔다。 무악재사고이후 한동안은 기자들을만나 악수할때도 어깨는 여전히 꼿꼿한채로『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그러고 다녔다。 이번엔『자연에 대한 인간의도전은 한계가 있다』는 다분히 운명철학적인 絶句가 나왔다。 사실 그의 생활신조는 능동적 철학、긍정적사고、전문가정신이며 그신조에 따라『지하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공언해왔다。

어깨가 팽팽한 사람들도 가끔 그럴때가 있다는 듯이。 용병을 進과退로 나누어보면 그는 進에만 익숙해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어깨가 긴장돼있는 사람이 지휘하는 지하철공사에서 왜 자꾸 사고가 터지는것일까。【任喆淳기자】

"우리가 拘束안됐으면 有益한事業 했을것"

어음사건 抗訴審 李·張여인 공판정서 답변

◇항소심법정에 나오고있는 李哲熙·張玲子부부。 63일만에 모습을 보인 이들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맡긴어음은 擔保用일뿐" 邊康雨피고인

李圭光피고인 缺廷 孔德鍾피고인 30분만에 退廷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 사기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주심 李根雄판사) 심리로 현시대법정에서 열려 하오늦게까지 사실심리가 진행됐다。

지난8월9일 1심 선고공판이 있은지 63일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는 관련피고인32명(구속21명 불구속11명)가운데 병세가 악화된 李圭光피고인을 제외한 31명전원이 출정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1심때간여했던 成敏慶서울지검 北部지청 차장검사를 비롯 李明敎·金相喜·鄭相明검사와 새로 서울고검의 曺于鉉검사등 5명이 나왔고 변호인측도李·張부부변호인인 文相翼·安東洙변호사를 비롯 항소심에서 새로선임된 李圭光피고인의 변호인鄭明來변호사등 36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李·張부부및 은행기업체 관련피고인 15명과 李圭光피고인및 大和산업간부 사채업자등 17명의 2개부분으로나누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李·張부부는『1심에서 피해기업인 라이프주택、해태제과、三益건설、태양금속의 간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한것은 증거동의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고한 말이다』면서『그들이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 재판정에 증인으로 불려오는등의 피해를주고싶지 않아 동의한것이다』고 진술、1심때의진술을 뒤엎었다。

이들부부는 또 成敏慶검사가『그들의 진술을 법정에서들려주지않았느냐』고 추궁하자『착오였다』면서 1심때와 마찬가지로 어음사기부분에대해서 완강히부인했다。

李·張부부는1심에서도 어음사기부분을 부인했다가 공판 막바지의 증거조사때는『검찰이 제출한 모든증거에 동의하고 지은죄를 달게받겠다』고 진술했었다。

李피고인은 또 1심때와마찬가지로『모든일은 내가구상하고 실천했으며 필요한때 집사람의 협조를 구했다』고 진술했고 張피고인 역시『남편의 의도에따라 순종했다』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기막힌 의사가 있었느냐』는 변호인 심문에『사기라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사기범의를 부인했고 張피고인도『천지신명께 맹세코 지난4월29일 우리가 구속되지않았다면 국가사회를위해 유익한 사업을일으켜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했을것』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李·張부부는 이밖에도『기업에서 받은 어음은 할인을 전제로했다』『소액권어음으로 발행한자체가 유통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였다』『특수자금 운운한적이 없다』면서 1심때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共榮토건회장 邊康雨피고인등 기업관련자들도『어음은 담보용이었으며 할인에 쓸줄알았다면 우리가 직접할인한 것이지 李·張부부에게 맡겼겠느냐』면서、1심때와 마찬가지 진술을했다。

이번사건의 관련피고인 32명은 1심판결에 불복、전원 항소했으며 검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조흥은행 [illegible] 지점장 徐小寅피고인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선고받은 9명에대해서만 항소했었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李圭光피고인은 위궤양 및장궤양 고혈압등의 병세가 악화됐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孔德鍾피고인(前商銀行長)은 이날 호송버스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업혀내려 교도관2명의 부축을받으며 입정했는데 수염이 덥수룩한초췌한 모습으로 매우 괴로운 표정이었으며 개정30분만에 쓰러져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퇴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18일상오10시에 열려 사실심리가 계속된다。

◇전 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진듯 초췌한 모습으로 같은 재소자에 업혀 입정했다。

"서로 利益되면 그게 正常" 항변도 張女人

이날 항소심공판정에 출정할때 李·張부부는 무표정한 모습에 풀이 죽어 있었으나 심문에 답할때는 오히려 1심때보다 뚜렷하고 여유조차 있는듯한 표정을 이었다。

張피고인의 입심은 1심때처럼 여전해 검찰은 물론 담당변호인조차 여러차례『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할정도로 계속 장황한설명조의 답변을했다。

張피고인은 1심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한다고한 진술을 번복하면서『피해기업간부들이 거짓말만을 늘어놓은것같다。 진술내용이 똑같은것으로보아 회사고문 변호사들이 진술요령을 미리 다 얘기해준것같다』고 공박하기도 했다。

張피고는 또『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상적이 아닌 부당한 방법을 써서야 되겠느냐』는 검찰심문에『서로 욕구를 충족하고 이득이 된다면 그게 정상이지 뭐가 정상이냐』고 항변、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張피고인은 또『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용어의 이해에 검찰과 차이가 있는것같다』면서『심문내용에 따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검찰은「편취했다」고 법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張피고인은 계속되는 장황한 답변에 검찰이 있다없다로 간단히 대답하라고 하자『꼭 그렇게만 물어보니 1심에서 대답을 잘못해 이렇게 혼이나고 있는게아니냐』고 짜증을 내기도했다。

張피고인은 이밖에도『피해기업운운하는데 우리가 피해기업을 만든게아니고 구속시키는바람에 피해기업이 생긴것이다』고 주장하기도했다。

"베개·시트血痕같은時間것"

科學搜査硏 생물실장證言 鄭載巴군 항소심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李齊九부장판사)는 11일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행정과3년)에대한 항소심 2회공판을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6명의증인을 심문하는등 증거조사를 가졌다。

이날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상규씨(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생물학2실장)는 鄭피고인의 자가용 승용차에서 수거한 시트커버3장과 베개커버에서 검출된 혈흔은 분포나 모양이 거의 동일한것으로서 혈액형은 O형이며 생성시기도 같은시기로 볼수있다고 진술、鄭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했다。

또 서재관씨(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부검의사)는 朴양의 치명상은 목을졸린것이라고 진술하고 색흔의모양으로보아 목을 죄는데 쓰인것은 부드러운 천보다는 딱딱하고 거친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건수사당시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서및 진술조서를 작성했던 서울東部지청수사관 박태선씨는 어머니가 鄭피고인의 자백내용이 담긴녹음 테이프를 들을때『불쌍한 내새끼』라며 약간흐느꼈고『사건당일 載巴가 밖에나갔다 온게 사실이냐』고 묻자『사실이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정한증인 6명에대한 심문을마치고 다음공판에 법원직권으로 鄭피고인이 사용하던 자가용 승용차의 전문전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어 검찰은 이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김영명、치흔감정가 김종열씨를 추가로 증인신청을하는 한편 드라이브해서 사건현장까지의 코스답사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이 신청한 鄭피고인의 부모와 숙모、숙부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공판은 23일상오10시。

회사白紙어음 훔쳐 市場에서 10억割引

서울中部경찰서는 11일 金星통신재경본부 자금과 직원 李景幸씨(23)를 절도、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씨는 80년7월부터 지난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자금부에서백지약속어음 1백72장을 훔쳐낸뒤 회사대표와 어음발행담당이사·자금과장등의 직인을위조해 액면 3천만원~5천만원짜리 어음 1백72장(액면가 9억8천만원)을 발행、乙支路2街 사채시장을 통해할인해 빼돌려 친구 李모씨(35)의 사업자금을 도와준 혐의다。

現場소장등 셋拘束

地下鐵붕괴사건

서울江南區瑞草洞 지하철 암반추락사고를 수사중인 서울江南경찰서는11일시공자인 漢陽현장소장 山光麟씨(41) 공사과장대리 鄭貞九씨(31) 작업반장 朴然山씨(35)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승용차 고개길굴러 1명死亡 둘重輕傷

【束草】11일 상오3시50분께 束草市盧鶴洞422번지 서울대 휴양소앞 목우재 고갯길에서 束草에서 雪嶽山으로 가던 서울3라5244호 승용차(운전사 조완식·41·서울城北區下月谷洞81의17)가 높이 1.5m의 언덕아래로 굴러 타고있던 박경화여인(26·서울江南區鶴洞52의38)이 죽고 운전사조씨등 2명이 중경상을입었다。【鈴】

前의원 李敏祐씨

제4·7대 국회의원을 지낸 李敏祐씨(사진·전·진共和·忠南牙山출신)가 10일하오7시 경기城南市中洞山2의21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7세。 유족으로 부인 金金禮여사(71)와 3남3녀를 두고있다。 발인은 12일상오10시、장지는 충남天安市聖成洞선영、연락처 城南②4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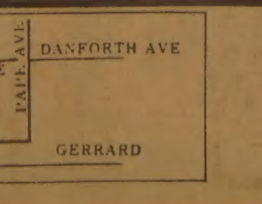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화소식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최저가격
·최대봉사
·최고품질

(PICK-UP 또는 주문) ($150이상)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세계 곳곳서 날아온 勝戰譜·敗戰譜

한국女子 7連勝 예선首位

亞洲J농구 中共·印 연파…내일부터 4強戰

男子는 泰와 공동2位 固守

【마닐라=李基洪특파원】제7회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팀은 강호中共을 격파한데이어 10일 예선최종전서 印度를 97-33으로 대파, 7전 전승으로 예선1위를 차지했다. 여자팀은 13일부터 열리는 4개팀 결승리그에 나간다.

한편 남자팀은 2진을 기용하는 여유를보이며 카타르를 90-40으로 제압, 5승1패로 B조서 泰國과 공동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팀은 11일 홍콩과 최종전을 남겨놓고있다.

◇제9일예선리그최종일전적

▲여자부

중 공 93 (38-55, 36-30) 66 일 본

인 도 78 (49-29, 30-28) 58 태 국

▲동 순위=①한국7승 ②중공6승1패 ③일본 5승2패 ④필리핀 4승3패 ⑤인도 3승4패 ⑥말레이지아 2승5패 ⑦홍콩 1승6패 ⑧태국 7패

◇제8일전적

▲여자부

한 국 97 (54-43, 19-14) 33 인 도 (7승) (2승4패)

중 공 118-38 태 국

말레이지아 65-47 홍 콩

일 본 101-79 필리핀

▲남자B조

한 국 90 (47-43, 28-12) 40 카타르

태 국 111-95 싱가포르

◇제7일전적

▲여자부

한 국 77 (37-40, 39-34) 73 중 공

중 공 3-0 캐나다 (3승1패) (2승2패)

세계男子배구

한국, 日에져 決選진출 좌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聯合】한국은 11일 상오(한국시간) 열린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3차전서 日本에 3-0으로 완패, 1승3패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결승토너먼트진출의 희망이 완전좌절됐으며 9~12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이날 姜萬守·金浩哲·張允昌·柳重卓·李鍾敬과 對東獨전서 부상을당한 인원 大신 金相保를 기용, 베스트멤버를 동원했지만 어처구니없이 완패했다.

지난 58년 아시안게임이래 한국은 日本과의 역대통산전적서 10승16패를 기록했다.

한편 中共은 캐나다를 3-0으로 격파, 3승1패로 日本과 함께 공동선두를 이루고있다.

◇3차전적

일 본 3 (15-5, 15-11, 15-6) 0 한 국 (3승1패) (1승3패)

漢大, 루마니아 격파

퀸즈컵蹴球 自由中國꺾으면 準決올라

【방콕=安泰煥기자】漢陽大는 10일밤 열린 제12회 퀸즈컵축구대회 2차리그 W조 2차전에서 후반3분 白南秀의 스로잉을 받아 金正熙이 결승골을 성공시켜 루마니아(청소년선발·18세이하)를 1-0으로 꺾고 1승1패를 기록했다.

漢陽大는 12일밤 自由中國(대학선발)을 물리치면 준결승전에 나가게 된다.

▲2차리그W조

한 양 대 1 (0-0, 1-0) 0 루마니아 (1승1패) (1무1패)

테니스코트 夜間조명 허용

88올림픽대비 選手기량向上돕게

정구장의 야간조명 규제가 5년5개월만에 풀려 밤에도 정구를 할수있게 됐다.

동자부는 지난77년4월1일 에너지절약시책으로 각종 경기장의 야간조명을 금지시켰었는데 11일 정구장의 야간조명시설 사용을 허용했다.

사설경기장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의 조명설비는 계속 사용금지시키기로했다.

동자부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정구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고 86년아시안경기대회및 88년서울올림픽에 대비, 체육인구 저변확대를위해 정구장에한해 야간조명시설을 사용토록 허용했다는것이다.

朴利熙 5位차지

홍콩 월드컵卓球

【홍콩AP=聯合】세계랭킹 9위인 한국의 朴利熙는 8위전에서 홍콩의 치우란쿠엔을 2-0(24-22, 23-21)으로 누르고 5위를 차지, 2천7백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한편 세계챔피언인 中共의 郭躍華는 유럽챔피언 미카엘 아펠그렌(스웨덴)을 3-0(22-20, 21-5, 21-9)으로 제압, 우승을 차지하면서 1만5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축구國家대표 2陣과 무승부

4차評價戰 1-1

뉴델리아시안게임을 불과 1개월앞둔 국가대표팀은 10일 서울운동장서 열린 최종 4차평가전에서 공격정력부족으로 상비군과 1-1로 비겨 불안한 전력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에서 대표팀은 전후반 모두 9개의 득점기회를 맞아 경기시작 2분만에 FW 邊炳柱가 1골을 뽑았을뿐 나머지 기회를 모두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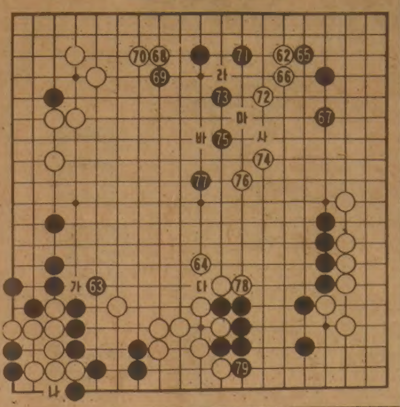
상비군은 시종 밀리다가 후반20분 金鍾煥(서울大)이 동점골을 넣었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第6譜 62~79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 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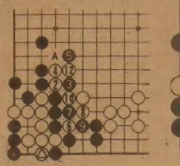


일단 소강상태

좌하귀를 죽여서까지 하변 黑세를 철저히 유린한 徐6단은 우상귀를 白62로 걸쳐 새로운 국면을 구상한다.

또 62는 실상 白「가」로 끊는 수의 축머리마저 보고있어서 여간 예리하지 않다.

黑63은 노타임. 부득이한 보강이다. 이수를 태만했다가는 진짜로 수가 난다. 우선 白「나」로 귀살이수를 볼때 참고도의 黑1로 곡4궁을 만들면 그제는 白2로 끊는다. 白4때 黑은「A」에서 모든 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5에 잡을 씌우게 되지만 白6이하 10으로 조여 黑11로 잇게하고 12로 탈출하면 귀는 패가나는 만큼 黑이 망한 꼴이다.



예서부터 다시 소강상태. 黑79까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또 白이 약간의 문제점을 빚어냈지만 국면은 점점 전면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白64는 정수. 이것으로 黑「나」의 끊음수를 대비한다. 黑도 65이하71은 아마추어가 눈여겨 보아야할 행마법이다. 白72는 다음 白「라」를 보는 맥점. 그러나 白74로는 「마」에 모하여 黑「바」白「사」면 보다 견실했다는 평인데 徐6단은 여유있게 白78로 상하를 연결지으며 차분히 진군할 요량이다. 그리고 黑79를 보더니 비로소 생각에 잠긴다. 【一八】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37>

안개속의 집 ④

석이와 혜이 몸에선 어떤 냄새가 날까? 그애들을 안아본지 오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지는 문득 자신의 섬녀노릇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걸 어쩌란 말인가? 잘못 맛들인 쾌락처럼 도저히 그만둘수 없는걸 어쩌란 말인가?

따뜻한 물속에서 그녀의 의식도 풀어진 미역줄기처럼 제멋대로 흐느적댔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때 기욱은 침대에 들어있었지만 깨어있었다. 뭔가를 벼르고있는 눈치였다. 수지는 얼른 가운앞자락을 푹 여며 밴드로 질끈 동여매면서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먼저 주무시지 않고. 나 오늘 좀 바빠요. 가뜩이나 피곤한데다 내일 강의준비를 해야하고…』

『누가 뭐랬게? 나는 털끝 하나 까딱 안했어? 몸도 마음도…』

그가 한껏 야비하게 낄낄댔다.

『점잖지 못하게…』

수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점잖지 못한 생각은 당신이 먼저 했을 걸』

기욱도 지지않고 얼굴가득 냉소를 머금고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경대앞에서 가운 깃을 느슨히 풀어헤치고 영양크림을 처덕거리기 시작했다. 풍만한 가슴이 도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를 안아본지 오래인 기욱은 쾌락에의 충동을 안 느낀건 아니었다. 그러나 쾌락에의 충동보다 앞질러 예감되는 고약한 환멸의 예감이 먼저 그의 욕망을 위축시켰다.

환멸의 불쾌감은 쾌락다음의 일이야. 쾌락이 먼저야. 뒤에 올 환멸이 두려워 번번이 쾌락의 기회에 적극적이지 못한 건 체할까봐 무서워 밥 못먹는 것과 같은 웃음거리야. 이렇게 자신을 부추겨봐도 소용 없었다.

기욱은 그녀가 제공할수있는 쾌락뒤에 그런 고약한 환멸을 거느린 수지를 악취를 맡듯이 경멸했다.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부부 사이가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럼 사랑이었나? 기욱은 수지를 처음 보고 점 찍었을때 생각을 할때마다 조금 쑥스럽고 조금 한심스러워졌다. 자신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운전기사 버르장머리를 그따위로 길들여서 어쩔셈이에요?』

수지가 젖은 머리를 빗질하면서 말했다.

『왜 천 기사가 당신한테 무례하게 군 일이라도 있었나?』

『제까짓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무례하게굴어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38>

안개속의 집 ⑤

『보람 좋아하네』

기욱이 하품을 하며 시들하게 답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를 벗어서건 경멸을 벗어서건 욕망을 벗어서건 아내를 향해 열렸다간 닫혔다.

『비꼬지 말아요. 당신이 비꼬는대로 나는 자선사업가는 아닌지도 모르죠. 사업가는 너무 거창하고 그게 취미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녀도 말을 끊고 잠깐 숨을 들이고나더니 정색하고 계속했다.

『그렇지만 나는 고아들을 내 집까지 끌어들이진 않았어요. 내 아이들하고 고아들을 같은 식탁에 앉힐생각은 추호도 없다구요. 대사회적인 관심과 내 아이들에대한 사랑하곤 엄연히 다르다는 전제하에 행동해 왔어요』

『당신이 똑똑하다는건 진작부터 알고있었어. 정말 어지간히 똑똑하다는걸』

기욱은 흥분하지않고 잠꼬대처럼 느릿하게 말했다.

『우리 서로 정떨어진다는 말같은건 삼가고 삽시다』

수지 역시 밥 먹고 자라는 말처럼 감정없이 가볍게 말했다.

『왜 자존심 상하나?』

『별로. 정 떨어지긴 나도 마찬가지걸요』

『왜 같이 살지? 우린』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이들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게 속편하면 그렇게 생각하구려』

수지가 싸늘하게말하고 침대로 들어왔다. 싸늘한 말투 때문인지 가까이 누운 아내의 몸에서 냉기가 쭉겨와 기욱은 이불을 끌어당겨 가운데다 골을 만들면서 물었다.

『어떤 때 내가 그렇게 정이 떨어집니까?』

『여가를 천기사 따위하고 보내는걸 봤을때…』

『어차피 여간 여가잖아. 속 편하게 보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여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남자가 출세하고 못하고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여가를 그따위로 죽일 생각말고 활성화 시키려해요』

『여가를 활성화 시키다?』

『그럼 여가가 아니게?』

『이렇게 말귀도 못알아들는건. 활성화대신 정치적이란 말을 쓸까요?』

『새록새록…』

『당신도 좀 철이 나려면 내가 우습게 뵈지말아요. 여가를 좀 정치적으로 보낼수 없어요?』

수지는 그말을 오랫동안 벼르었던 것처럼 정색하고 말했다. 기욱을 무시한듯 대신 간절한 기미마저 엿보였다.

『당신은 그놈의 정치에 넌더리도 안나? 협잡 볼줄 보고서도…』

기욱이 벌컥 역정을 내면서 큰소리를 쳤다.

『협잡뿐인가요? 당신 몫까지 다 날렸어요. 당신도 빈털털이예요. 지금 이만큼 사는것도…그만 둡시다. 피차 비참해질 뿐이니까』

『좀 생각해주는 척 하는군. 그만했으면 당신 할말은 다 했어』

『그러니까 여보, 내가 정치적이라는 건 당신더러 정치나 관계로 진출하란 소리가 아녜요. 당신이 공학도인지 누가모르나요. 당신이 그 방면에 유능하다는 것도 알아요. 정치적이란 정치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정상으로 빨리 갈수있는 처세와 같은 얘기에요. 남자들의 세감각이에요』

당신을 우습게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보기에 그 사람, 하인의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건방져요』

『하인의식?』

기욱이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래요, 하인의식이요. 왜 내 말이 뭐 틀렸나요? 하긴 천기사 나무랄 일도 아니죠. 당신이 상전의식이 없으니까 천기사가 하인의식이 없을수 밖에. 위신을 좀 지켜요』

『당신같은 박애주의자, 자선사업가가 그런 인간차별 하는 소릴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난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 얘기하고 있는거 아녜요. 내 얘기라면 또 그렇죠. 난 그동안 시간 많고돈 많은 부자친구들을 꾸준히 설득해서, 오늘 마침내 그들과 어떤 고아원과 모자결연까지 맺고 오는 길이에요.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고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나도 보람을 느꼈구요』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Richard Y.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 · 왕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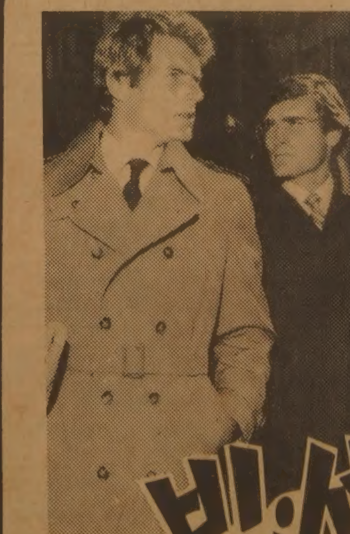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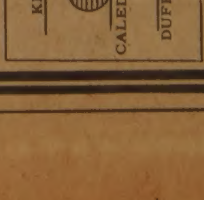
빅·세븐 선물센터
코트 대매출
LONDON FOG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여자용
특별할인봉사
● 진품 웅담 ● 녹용(인삼 제품)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테프와 비데오테프 다량입하!!
랜비 넥타이, 지방지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October 18 - October 30		SPECIAL
Mailbox Full of Heart	24x39¢	$4.19
Fruitella	36x25	4.69
Dare Jubes	24x35	5.45
2¢ Double Bubble	480x.2	6.39
Lifesavers Candy	24x30	4.59
Peanutbrittle	24x40	6.29
Lollipops Lifesavers	120x10	8.17
Lollies	160x.5	5.29
Sour Tongue	100x10	6.29
Carefree Gum	18x35	4.05
Breathsavers Candy	18x35	4.05
Bubble Yum	18x30	3.30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콜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성실한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 923–8737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Donut Shop에서 주말에 밤일, 낮일 「Part Time」하실 여자분 구함. ★전화는 오전11시 이후
전화 : 282–3553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식품점에서 일할 Helper 구함.(남자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주7일간)
삼복식품 전화 : 743–827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가게에서 Helper해주실
신체건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Donut가게에서 밤일하실 (Full Time)
남자분구함. 저녁 10시–오전8시까지
전화 : 531–2689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Bargain Sale !
★Dairy Case(우유제품 진열장) 6ft.
★2 Door 냉장고(Store용) 242–4712 Mr. Kim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오셔서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전화 : 294–8164

미용실 급매, 드라이어: 6개
의자: 3개, 주인이 아픈 관계로 급매코져 함(좋은 가격)
Gus 전화 : 921–5947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쥐 벤 추럭(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포튜갈 빵가게및 버라이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권분실

분실자성명: 전성혜(여) Korea
여권번호: 1152065
연락처: 425–2198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실비하숙 또는 방세 놓읍니다.
상세문의 오후 5시 이후 전화 : 530–104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튼)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